

할렐루야, 죄악에 빠져 영원한 사망에 처했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 친히 달려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급여가 끊길 때, “실직자를 위한 영적 돌봄” 하나님의 경제 속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지난달부터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이 무더기로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해고당했어요.” 저는 워싱턴 D.C. 인근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통 정부 관련 일자리가 많아 경제 불황의 영향을 덜 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연방 정부 직원들과 계약직 노동자들 사이에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직업적으로 안정된 공동체였던 우리 교회가 이제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준비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저 역시 실직이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처음 해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이력서를 보내면서 느낀 조용한 수치심, 저축이 줄어들수록 커지는 불안감, 실직 초기 몇 주간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까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놀랄 만큼 제 교회 성도들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목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건강 문

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 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습관처럼 “무슨 일 하세요?”라고 묻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일자리를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타격을 넘어, 자아의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깊은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오는 영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은 피상적인 격려나 단순한 실용적 해결책을 넘어서 실직을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취업 연결이나 재정 지원만 제공하고, 그 밑바탕에 있는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질문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사람 전체를 놓치는 셈입니다.

실직한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지 일자리 정보나 이력서 작성 워크숍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제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생산성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진리입니다. 이런 토대가 없다면, 아무리 선한 의도로 돕는다 해도

우리가 제공하는 도움은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도 없다”는 세상의 메시지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생산성을 중시하는 오늘날 문화에 강력한 반대 서사를 제공합니다. 몇몇 시편들은 우리의 가치를 경제적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근거하여 입증합니다 (예: 시편 139:13-14). 예수님도 우리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는 참새에게조차 먹을 것을 주시듯이, 우리 역시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26).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이러한 진리를 몇 가지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3면으로 계속)

실직은 정체성의 위기

교회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새 언약의 새 봄을 살게 하시려



이인미 시인
(문화선교원 시전 대표)

새 언약의 새 봄을 살게 하시려
한 알의 밀알되어 흙속에 심기사
대속해 주시고 신의 성품에
소속시키셨네

죄없이 죄인이 된 신의 아들
구원의 주 예수그리스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못박힌 사랑에서 떨어지는 저 핏물, 신이며 사람이어서
더 외로웠을, 죽어도 멈추지 않는 심장이어서
맞아도 식지 않는 피로 만유를 품고
무덤에서 유유히 걸어오신 분, 그
허리에서 나온 교회여, 한몸성전이어!
죄인의 이인되고 여동이 빛이 되네
병들어도 죽어도 영생청춘 입하신
다 이루신 그 완성이
우리의 시작되게 하신 분, 아직 밤이여도 이미 동튼 새벽이라
아직 힘들어도 머리에 왕관이라
이제 보인다, 옛것이 새 것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새 언약의 새 봄을 살게 하시려
차가운 대지를 뚫고 나오신
한 알의 밀삭 안에 내가 있네
내 안에 밀삭이 살아가시네

이인미 시인 (문화선교원 시전 대표, 시집 하나님의 시인 외 다수)



시론 2면
이동진 목사



푸른초장 4면
박태검 목사



선교한국 7면
손상웅 목사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소령물: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2025년 부활절

뉴욕일원 11개 지역 새벽 연합예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17-

4월 20일(주일) 새벽 6:00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회장 허연행 목사

시론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알 수 없다'는 우리 속담은 맞는 표현이다. 온 국민을 심리적으로 두 동강내며 공격과 증오와 술수 등으로 극한 감정대립으로 이끌던 하나의 이슈가 잠시 잠잠해졌다. 마치 사람 속을 알고 있는 듯이 인용과 기각, 몇 대 몇으로 가능하던 잣대가 무너지고 더 참담한 세상을 만들어낼 것 같은 기운이 흐르는 것 같다.

무지하면서도 야비한 공격이 난무하는 이 나라에서는 이미 교회도 길잡이 역할을 잃어 버린지 오래되었고, 혼란의 바다에 빠져 함께 허우적대고 있는 군상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뭉치고 헤어지는 이합집산(離合集散) 속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 덩어리를 만

들어내곤 할 것이다.

팀 켈러는 '예수, 예수(Hidden Christmas)'라는 책의 부제(副題)를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이라고 정했다. 굳이 부제를 달지 않아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모르지 않을텐데 왜 굳이 부제를 달았을까? 아마도 수학문제의 정답만이 아니라, 정답을 얻기 위한 풀이과정을 설명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첫 페이지는 이런 소제목으로 출발한다. <소란한 축제에 가려진 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두고 온 태평양 건너 그 나라의 여러 사회상황들 속에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팀 켈러의 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정치현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극한 갈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설교자는 어쭙잡게 한 마디 하기도 주춤거리게 된다. "이 쪽이나, 저 쪽이나?" 앞에서 성경의 원칙을 이야기해도 양비론자라는 비판이 날아오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다 하고, 또 한 마디 하면 너는 왼쪽이라고, 너는 오른쪽이라고..... 그야말로 우리의 복음인 예수 이름은 팀켈러의 책 부제처럼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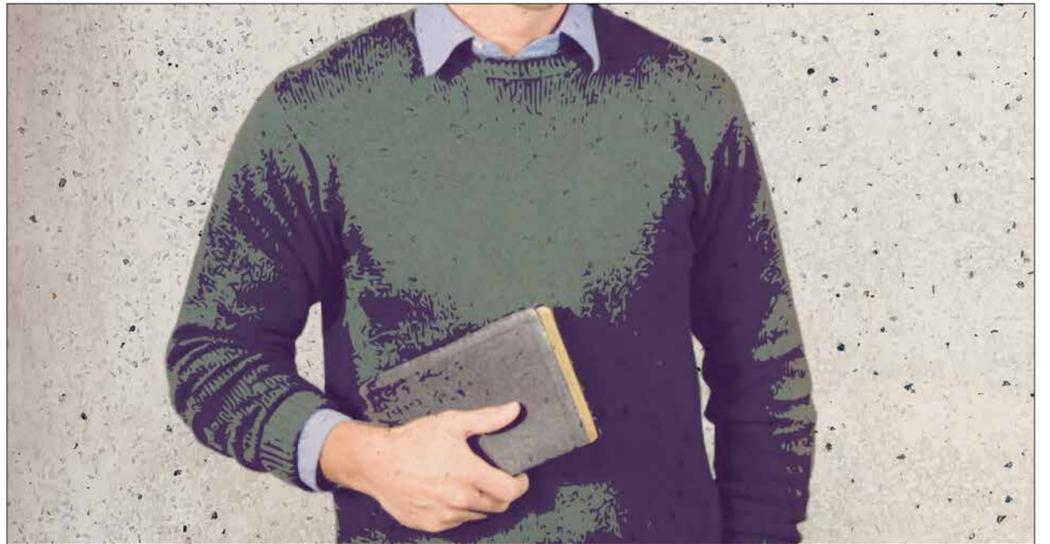
기독교의 명제(命題)는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언제나 위(above all)이다.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이 예수라면 이 시대 다시 들추어내야 할 이름은 선지자(先知者, Prophet)일 것만 같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지자적 메시지를 주신 말씀이 출33장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오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시 마음을 정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시니라(출 33:5)'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온 국민,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정치인이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들의 속을 어찌 알랴? 그러나, 교회는 그 속을 이미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든든하게 옷깃을 세우고 온갖 장신구들로 치장하고 마치 거룩한 듯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알팍한 지식이나 고착화된 자기주장과 단단한 담이 되어버린 이념 등으로 전지, 전능,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제한하지 말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본 척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출 33:20) '사람의 마음 속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듯이 재단(裁斷)하지 말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리가 할 일은 주령주령 매단 자랑과 명예와 권력과 탐욕의 장신구를 조용히 떼어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djlee7777@gmail.com

가짜 강해 설교 가려내기
당신을 부르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강해설교라고 주장하지만 단지 강해설교의 흉내를 내는 데에 그치는 매우 약한 설교를, 나는 지금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설교단 아래 앉아서 들은 적이 있다.

강해설교는 본문의 요점을 설교의 요점으로 만드는 설교를 말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 정의가 설교에 필요한 추가적인 강조 및 적용 또는 창의적인 설명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본문의 핵심 요점을 설교의 요점으로 만들지 않는 설교는 어떤 경우에도 강해설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나는 강해설교의 이 점을 강조했다. 목사와 교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우리는 가짜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짜를 원한다." 하지만 가짜 강해설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네 가지 일반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본문을 따라가는 설교

순차 설교(sequential sermons)는 본문을 한 절씩 다 훑는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며, 알팍하고 단지 에피소드에만 기초한 설교보다는 훨씬 낫다. 하지만 본문을 훑는다고 다 강해설교가 되는 건 아니다. 본문을 줄줄이 훑으면서도 얼마든지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순차 설교도 강해질 수 있다. 하지

만 얼마든지 한 시간 분량의 본문 주석으로 바뀔 수도 있다. 성경에는 줄줄이 훑어보는 데에 더 적합한 장르가 있는 반면에(예: 서신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설교를 더 어렵게 만들고 교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장르도 있다(예: 역사서). 로마서 설교의 경우에 나는 바울의 사고 흐름을 선형적인 방식으로 따라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바울이 "그러므로"를 자주 사용했고, 따라서 내 강해는 순차적이어야 했다.

하지만 역사서, 지혜 문학, 그리고 시가는 순차적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 설교자는 먼저 본문의 주요 요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각 구절의 주제나 줄거리가 전체 요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설교자라면 한 가지 강해 스타일에만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각 본문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고려하고, 어떤 설교 구조, 즉 설교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2. '선하고 참된 이야기만 하는' 설교

이건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본문을 단지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를 말한다. 사악한 동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짜 강해설교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에 이런 식의 설교

는 보통 강해설교에 열정은 있지만 준비와 훈련이 부족한 설교자의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설교에도 감동받고 성장하는 교인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하고 진실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혼을 위한 양식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들은 진리가 말씀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교자는 자신이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확성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읽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느 8:8).

본문이 설교자의 메시지를 주도하지 않을 때, 설교자는 단지 자신이 이미 알고 실천하는 내용만을 설교할 뿐이다. 하지만 목사의 설교가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형성되고 확장될 때에만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한다.

3. '디테일을 파고드는' 설교

설교의 전반적인 개요보다 주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설교자들이 있다. 이런 설교자는 보통 어휘적, 역사적, 고고학적, 언어적 통찰력을 자세히 설명하기를 즐긴다. 이것도 얼마든지 교인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할렐루야백화점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i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New York · New Jersey
선교사의 집
후원: 917-599-3620
40-22-158st Flushing, NY 11358
Sunnyusany@yahoo.com

내시력 2025년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1996년 이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LA 한인사회 중심인 서울 국제공원에서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오랜만에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는 뜻깊은 연합예배에 모두 참석하시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감격의 부활절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시: 2025년 4월 20일(부활절) 새벽 5:30분
장소: 서울국제공원 야외무대(LA 한인타운 올림픽과아드모어) 3250 San Marino St., Los Angeles, CA 90006
1부 감동의 새벽예배
2부 성찬식
3부 환자를 위한 치유기도
4부 찬양축제(헤세드 찬양 울동팀 등 다수 참여)
집례: Dr. John (미국인 목회자)
주최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회장 류당열 목사)

급여가 끊길 때, "실직자를 위한 영적 돌봄"

(1면에서 계속)

1. 언어를 재점검하기

먼저 우리는 일과 성공에 대해 사용하는 언어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설교와 가르침이 의도치 않게 생산성과 영건을 동등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문적 성취를 칭찬하는 예화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경력 향상만을 자주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미묘한 패턴은 잘못된 성공 신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의도적으로 다양한 예화를 사용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직업에서 비롯된다는 문화적 전제를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2. 일과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 시리즈 준비하기

목회자들은 일과 정체성에 대한 신학을 다루는 설교 시리즈나 소그룹 성경공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직 문제가 성도들에게 닥쳤을 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성경적 토대를 세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유배된 모세,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같은 직업/삶의 큰 혼란을 겪은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불확실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가 됩니다.

3. 정체성에 대한 목회 상담

목회 상담에서는 실직이 불러오는 정체성의 문제를 깊이 다루어야 합니다. 실직할 성도를 만날 때 단순한 위로에 그치지

지 말고 이렇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 보세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동안 당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직업적 역할과 무관하게 당신 자신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무엇 일까요?" 이러한 대화는 성령께서 성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시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다른 필요들을 채우는 실제적인 방법들

사람들의 정체성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실제적인 필요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그 예시 세 가지입니다.

1. 진부한 위로를 피하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준비하셨어요"와 같은, 의도는 좋지만 해로운 상투적인 말들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말은 진정한 슬픔을 무시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의도치 않게 경제적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변영 복음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의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해주는 것이, 실제 상태가 곧 가치의 상실이 아니라는 진리를 확인해주는 첫 걸음입니다. 이런 인정과 공감은 '진실한 탄식(lament)'이라는 깊이 있는 성경적 표현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시편 곳곳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픔을 토로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아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고 그 공간을 허용

해 주세요.

2.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라

회중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워크숍 및 네트워킹 이벤트, 무료 프로필 사진 촬영, 면접용 정장 대여, 면접 시간 동안의 아이 돌봄, 구직자를 위한 임시 사무 공간 마련 등

여민 교회들은 전문 자격증 회비나 평생교육 등록금을 지원받는 기금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실직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종종 예산 삭감 시 가장 먼저 줄어드는 항목들입니다. 실직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는 부부 상담, 가족 전화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소그룹, 그리고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을 돌보는 지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복음의 소망을 전하라

복음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소망을 줍니다.

다른 단체들도 직업 훈련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으로 인한 영적 위기에 대해 진정한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교회 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진리—이것이야말로 실직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은 단순히 "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생산자가 있는 것이 아니

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체적인 진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더 크신 구속 이야기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시기를 영적 성숙과 성찰의 기회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은 또한, 성취 중심 문화 속에서 실적이 불어오는 수치심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진리를 강조할 때, 교회는 실직이 주는 고립감과 소외감에 맞서 싸우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경제 속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실직한 이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실질적인 필요를 돌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때,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방식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직에 신학적으로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따뜻하게 반응하는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그 나라에서는 가치가 생산성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쳐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로 정해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사람들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그 가치는 월급으로 측정되지도, 월급이 사라졌다고 줄어들지도 않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by Joe Carter, TGC

목회단상

한 가지에 집중합시다



손기성 목사 (은혜장로교회)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없는 사이 개를 돌봐야 했습니다. 늙은 개를 케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개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가족으로 살아온 정과 아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이기도 해서 의리를 가지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를 아침마다 대소변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날은 소변을 가져가기에 했기 때문에 가져가기를 풀어 화장실 세면대에 담고 물을 틀어 놓았는데,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그냥 밤을 먼저 준비해 주고 오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옵니다. 아내가 개가 걱정스러워 어쩌고 있는지 확인차 보낸 것입니다. 문자를 보고 답장을 보내고 개밥을 준비하고, 밥을 먹이는데 잘 먹질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먹자" 그리고는 "내가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옷을 입고 내려오는데 어디서 '후드득' '후드득'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뭘 소리가 싶어 찾아보니 '아빠씨,' 가지거기를 담가놓고 틀어 놓은 화장실 세면대가 물이 넘쳐 화장실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화장실 턱을 넘어 거실 마루로 차고 나올 기세였습니다. 나갈 준비한 옷차림으로 뛰어 들어가 수도꼭지를 잠그고 막아놓은 세면대 배수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모든 물건과 페이퍼타월을 동원해 물을 긷어냈습니다. 한 마디로 화장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약속이 미뤄졌습니다. 말하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참을 닦고 물을 쓸어 담아 버리고야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도꼭지가 물이 좀 더 세게 나왔다면 얼마나 큰일이 났을까 생각해봅니다. 또 작년 아내가 찜질통을 할어서 화장실 바닥을 오래된 마루에서 플라스크 바닥으로 바꾼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때는 쓸데없이 나중에 집 마루 바깥 때 같이하지 별스럽다고 타박한 것이 미안해졌습니다. 뭐든지 불평할 게 못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게 있어도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레슨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멀티플한 인간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 번에 여러가지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운전하면서 전화도 받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신문도 보고, 대화도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여러 곳에 밥비를 올려두고 몇 가지 음식을 만들어 냅니다. 심지어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뉴스도 보고, 성경도 봅니다. "참 복잡하게도 사십니까"라고 아내가 타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때는 "내가 원래 좀 멀티플한 인간이구나 다 잘하니 걱정 마시라"고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면대 물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리다가 정말 큰 사고 나면 수습이 안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혹 한 가지 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투정합니다. 동생을 나무라달라는 것이지요. 수고는 자기 혼자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거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눅 10:38-42) 참 명언이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지금 내가 해야 하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더 안전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인 것을 말합니다. 운전할 때든, 음식을 할 때든, 사람을 만날 때든, 무엇을 하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Word4u@gmail.com

가짜 강해 설교 가려내기

(2면에서 계속)

하지만 교인들이 유대 땅 언덕에서 있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유대의 그 특정 언덕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때, 당신은 요점을 놓치는 것이다.

나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의 풍요로움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본문의 의미를 밝히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목적

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성경 외부의 정보를 설교 속으로 끌어와야 한다.

4. 강해-주제 설교

이런 식의 강해설교 모방은 보통 본문을 너무 느리게 훑는 경우에 발생한다. 단어나 구절, 하나의 개념을 골라서 설교 전체를 채우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3에 대해 설교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고 단지 "복"이라는 개념 하나만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이다.

때때로 속도를 늦추고 개념 하나를 길게 설명해야 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하나의 사례이다. 이 경우에 "구절의 요점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예컨대 이라는 이 교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를 상상하는 건 조금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설교자가 페리코페(하나의 생각 단위를 식별하고 그 의미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법을 모를 때, 강해-주제 설교가 더 자주 발생한다.

강해설교를 사랑하는 사람, 강해설교야말로 교인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가짜 강해설교를 경계

해야 한다. 당신에게 이런 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당신을 격려한다.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종을 기쁘게 축복하신다. 그의 축복이 당신이 취하는 강해설교 방식의 정확성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 설교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된 목사들이여, 당신을 부르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설교 사역을 통해서 성장시키기 위해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라.

by Sean DeMars, TGC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and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우리가 선호하는 다문화 사회는?

한국, 일본,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지만, 오랜 역사와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문화적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이러한 문화 차이는 음식의 '맛'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음식 문화가 각 나라의 역사, 가치관, 사회적 특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음식에 담긴 철학을 통해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 음식의 핵심은 '손맛'입니다. 한국인의 '손맛'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방식이며,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나물은 정성스럽게 손으로 무쳐 독특한 '손맛'을 가미합니다. 이 '손맛'은 음식에 정성을 더하고 사람들 간의 정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찌개에 밥을 말아 먹고, 고기를 찌며 싸 먹고, 한국인의 식탁에서는 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밥과 나물에 양념장을 더해 비비는 비빔밥은 그 자체로 즐거운 과정이 됩니다.

반면, 일본 음식은 '칼맛'입니다. 칼의 기술이 음식의 맛과 풍격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칼로 재료를 깔끔하게 손질하고, 섬세하게 담습니다. 일본 음식에서는 재료를 섞거나 비비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재료를 섞거나 비비는 것은 예외에 어긋난다고 여기기

도 합니다. 심지어 카레라이스도 밥과 카레를 따로 담아 각각 한 입씩 먹습니다. 이는 재료 본연의 맛과 형태를 존중하는 일본 음식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음식은 '불맛'입니다. 뜨거운 화력으로 강렬하고 다채로운 맛을 완성합니다. 불을 다루는 기술이 요리사의 실력을 나타냅니다. 강한 불에서 워(wok)으로 빠르게 볶아내는 조리법은 단순한 요리기술을 넘어서, 요리사의 열정과 힘을 상징합니다.

이 세 나라의 문화적 차이는 각 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무기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창'은 직선적이고 강력합니다. 강한 불맛과 웅장

함이 특징인 중국 요리처럼, 스피드와 파워를 상징하는 중국의 '창'은 넓은 전장을 빠르게 커버하며 적을 제압합니다.

일본의 '검'은 정교하고 예리합니다. 잘 드는 칼로 재료 본연의 특징과 맛을 살리는 섬세한 일본 요리처럼, 사무라이의 '검'도 정확하고 깔끔한 기술을 중시합니다.

한국의 '활'은 유연하면서도 정확합니다. 음식을 비비고, 찌를 싸먹고, 말아 먹으며 음식을 통해 정을 나누고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 듯, 한국의 활은 멀리 있는 대상을 유연하고 정확하게 연결해 줍니다.

이 세 나라의 음식과 무기는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사고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공유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쌀을 중심으로 한 식사문화, 밥, 반찬, 국물의 조화, 젓가락을 사용하는 식사예절, 차와 다도, 풍수지리, 불교와 유교 전통 음악양행 사상 등 비슷한 문화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미국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한 지역에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멜팅팟'(Melting pot)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와 같다는 비유로, 각기 다른 문화와 인종이 하나로 녹

아들여 '미국인'이라는 공통된 정체성 아래 동화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샐러드 볼'(Salad Bowl)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문화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치 한국, 일본, 중국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고유한 문화를 가진 것처럼, 각기 다른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는 다문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어떤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나요? 각자가 고유한 모습으로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 아닐까요?



푸/른/초/장

박태겸 목사

(KPCA 총회장, 캐나다동신교회 담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이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 7:9,10) 부모는 약하여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한다. 문제는 좋은 것을 받는 자식의 상태이다. 그냥 좋은 것을 주면 귀한 줄을 모른다. 그리고 자식이 가지고 누리기도 전에 이웃과 사탄이 먼저 알고 빼앗아간다. 성경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다."(마7:6) 그들은 그것을 밟고 돌이켜 그것을 찢어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게 된다.

청년을 살해하여 죄인으로 몰려 광야로 도망친 깨어진 그릇이었다. 요셉은 어떻게 중동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 종살이하며,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가는 사건으로 부푼 꿈이 깨어

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삼상 17:45) 골리앗은 강력한 군인이었으므로 자신의 칼과 창을 의지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리고 약했으므로 자신의 힘이 아닌 '상한 심령'이 되

고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다. 나의 인생을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다. 사립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재비를 뽑았는데 떨어져, 한 해 재수하여 공립초등학교에 갔다. 일류 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 후기로 들어갔다. 대학교 시험도 떨어져 지방 대학에 머물렀다. 신학교 시험도 떨어져 재수하여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했다. 장로교 통합측 최초의 베트남선교사로 지원해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멋지게 선교하고 싶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나를 제국주의 앞잡이로 몰아 베트남을 떠나게 했다. 그러나 이제야 알

독수림처럼 강한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로 변해가고 있었다. 재난은 심판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기도원의 모습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었다. 어떤 광물도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 수가 없다. 욕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욕의 친구들처럼 율법적이요 논리적이요 이성적인 틀 안에서 고난받는 자들을 인과응보의 법칙인 원인과 결과로만 인생의 문제를 풀었을 것이다. 그들은 욕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고 그가 받는 고난을 죄의 원인으로 분석하며 해결책으로 회개만 강요하

말은 아로새긴 쟁반 위의 금사과나라."(잠25:11)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 화려한 혼인잔치는 금 그릇 위에 담긴 돌 사과에 불과하다. 당신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담고 살았다.(10절) 젊은 시절 바울은 자기가 금 그릇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시시한 것을 담고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그러나 그가 질그릇이 되고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께 헌납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7,8) 그러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상처입은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방인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일어리게 되었다. 그는 날마다 죽는 편을 선택했다.(11절) 그러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그의 죽을 육체 속에 계속 나타나게 되었다. 항상 주님을 담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다른 생각이 몸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방패를 사용해보라.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의 껍질에 싸여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아보라. 고난은 우리를 깨뜨려 질그릇으로 만드는 참 좋은 도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껍질 안에 담겨 있는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준비된 질그릇이 되면 주님은 넘치는 열매와 축복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상한 마음 속에 담긴 보배이다.

상한 마음 속에 담긴 보배

고린도후서4:7-12



1. 좋은 사람이란 '깨어진 질그릇'이 되는 것이다. (7절)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천한 그릇을 말한다. 질그릇 같은 마음이란 연약함과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을 가리킨다. 만일 깨어지지 않는 그릇 속에 보호배를 넣어두면 꺼내 쓸 수가 없다. 이는 물건을 자물쇠로 잠가놓고 열쇠를 잃은 경우와 같다. 주님의 방법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귀한 보배 그릇이 되길 원한다. 보배그릇이 되어야 보배를 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야 보배를 담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럼, 질그릇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이 상한 사람(a person with hurt pride)'이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다. 모세는 어떻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는가? 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이집트

진 질그릇이 되었다. 그들은 세상은 자기의 힘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가 꺾이면서 질그릇이 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된 우리가 질그릇이 되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런데 다윗은 일찍부터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했다.(시 51:17) 그는 어린 나이에 원수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담은 질그릇으로 싸웠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

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으라."(찬67/4절)

2. 질그릇이 되려면 도가니에서 7번 구워져야 한다. (8,9절)

한 번만 상처를 입어도 자기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1등 하다 2등을 하면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도 있다. 생각대로 안되면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을 잃으면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다

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가마니 속에 집어넣어 7번 단련한 순전한 질그릇을 만들고 계셨다. 실패를 통해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운다. 지난 4월초에 캐나다 토론토 북쪽 지역의 기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태풍과 얼음비(freezing rain)로 소나무들이 다 꺾이고 부러지고 지붕을 훼손하고 건물 주위의 화단을 어지럽히며 가지들이 흩어져 전선터를 방불하게 되었다. 아름다웠던 기도원이 흉거처럼 변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나무들이 위로 새순을 내면서 야생마처럼 힘차게 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비둘기처럼 온유한 모습이

게 되었다. 고난과 심판은 끝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과 죽음 이면에 설계되어 있었다.

3. 질그릇의 가치는 담고 있는 내용물에 달려있다.

사과를 담고 있으면 사과그릇이 되고, 밥을 담고 있으면 밥그릇이 되고, 술을 담고 있으면 술잔이 된다. 그릇보다 담겨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 사람의 결모양보다 속에서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한 것과 같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경우에 합당한

canadadongshin@gmail.com

광야를 걷는 이민자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눈부시게 진보해도,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무력함을 대변하는 진실이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표현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4:14).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벧전 1:24).

인생은 잘나와 같다고 표현한다. 아주 짧은 시간의 단위, 눈 깜짝할 사이와 같은 순간을 가리키는 세상적인 표현이다. 참된 영원을 알지 못하는 세상도 다 아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삶,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한순간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짧고 연약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인생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결정

심한 삶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배를 인생의 중심 좌표로 두고 나머지는 카운트해보라는 것이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예배는 나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답을 얻는 자리이다.

한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밭을 갈게 가는 법을 가르친다. 아들은 열심히 밭을 갈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그 결과, 밭은 비뚤어지고 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조용히 말한다. "앞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며 그 방향으로 갈게 가거라." 인생도 그렇다. 앞을 보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길은 삐뚤어진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바라보게 된다. 불변의 좌표가 예배이다.

모세의 부르심, 예배의 본질을 말한다

는 이 약속을 붙드는 자리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체성을 되찾고, 사명의 불을 다시 점화하는 자리이다. 갈바를 알지 못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얻게 된다.

이민자의 삶, 예배는 나침반

이민자의 삶도 광야와 같다. 낯선 언어, 문화적 장벽,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녀 세대와의 소통 문제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힘겹다.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 오늘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예배는 영혼의 나침반이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예배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광야에는 지도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도가 되고 나아갈 방향이 된

앞에 무를 꿰는 자리, 그것이 예배이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 속에서 비전이 회복된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악인의 번영을 보며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시 73:17)고 고백한다. 예배 속에서 눈이 열리고, 영혼이 깨어난다. 현실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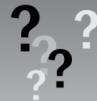
이민 목회의 현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언어의 장벽, 경제적 부담, 세대 간 단절들이 크다. 그러나 예배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수 있다. 예배는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이다.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난다

"예배가 살아야 개인,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이 산다." 이것은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외치는 진리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다윗 성가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성가대원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가대

A: 성가대라 하면 구약의 다윗 성가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 성가대는 약 4,000명의 성가대원이 있었는데 음악 실력이 있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만 거의 10명 중에 한 명만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도 첫째 1)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 성가대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만 그리고 레위지파 38000명중에 4000 명만이 다윗 성가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불러 주셔야 가능합니다.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명자는 면접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소명감입니다. 소명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학벌과 소질을 가지고 있어도 소명감이 없으면 입학조차 안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도 소명의식이 부족하면 주의 일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쉽게 그만두어 버립니다. 찬양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수시로 결석하거나 연습을 게을리하다가 나중에 힘들면 그만둡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가대원으로 불렀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2)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보통 구약의 다윗성가대는 25살에 부름을 받아 5년 정도 훈련을 받은 후 30살부터 정식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이 되려면 지휘자 밑에서 약 5년 정도 훈련을 잘 받아야 정식 성가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견습 기간 즉 Probation 기간이 5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가대원도 5년 정도 지나면 나중에는 제대로 악보도 보고 찬양이나 연주를 잘하게 됩니다.

3) 찬송에 미쳐야 합니다. 발광이 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쳐야 통한다는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은 찬양 연습에 미쳐야 하고 찬양 부르는 가사를 숙지하고 그 은혜로운 내용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격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사라사테는 천재라고 불리는데 그의 초인적인 기교는 사실 그의 연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37년 동안 매일 14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습했습니다.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원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4) 회중 찬양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풀러 신학교 박사 공부를 할 때 예배학 교수인 슈미트 박사가 늘 강조한 점입니다. 성가대원들은 교회에서 가장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들이기에 회중 찬양 때에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부르며 회중 찬양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양대 찬양은 잘하지만 보통 예배 찬양할 때는 입을 잘 안 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가대원들이 회중 찬양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 분위기도 달라지고 역동적인 찬양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지휘자는 반드시 예배 전에 회중 찬양을 반드시 미리 한번 부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사막 광야같은 이민의 땅, 예배는 광야의 길

-예배중심의 회복, 불변의 좌표, 삶의 생기와 소망-

짓는 본질적인 물음이기 때문이다. 짧기에 더 귀하고, 유한하기에 더 진지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을 주책 모기지에 비유하기도 한다. 30년짜리 주택 모기지를 다 갚기도 전에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웃픈 현실이지만, 그 속에 담긴 통찰은 분명하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허망한 종말 앞에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예배는 불변의 좌표

성경의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 지혜로운 말을 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인생의 헛됨을 아는 데서, 절든 삶이 시작된다. 세상도 아는 헛된 인생에 대해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좌표는 어떤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예배 중심의 삶에 있다. 이민자의 인생, 사막 광야와 같은 이민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가 '예배를 중

모세는 인생의 절반을 지난 80세의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의 실패자이며, 도망자요, 무명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다.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이는 단지 이 일감을 위해 종을 호출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인격적인 초대였다.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한다. 미디안 광야, 사막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기본 자세이다. 하나님은 이어 말씀하신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 자존심, 그리고 인간적인 의를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다. 예배

다. 어디서 이 방향을 얻고 찾을 것인가? 하나님앞에 드러지는 예배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은 예배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신다. 다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함으로, 공동체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살려 내는 것이다. 모세는 온갖 난관을 뒤로하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유는 단지 정치적 독립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출 5:1). 예배는 이스라엘 해방의 목적이며,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다.

예배는 신앙의 심장

이민교회의 존재이유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뜻 백성들을 예배의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예배는 신앙의 심장과 같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분열되기 쉬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자리, 서로 다른 배경과 언어를 가진 이들이 같은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요 4:23).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셨고,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한다(롬 12:1).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 예배는 건물이 아니라 삶이다. 이민자의 삶 속에서 예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본질이며, 존재의 이유이다.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가짜 예배의 만연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책망하신다. 감동 없는 형식과 순서에 매여 생기와 소망을 볼 수 없는 예배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진짜 예배는 성령의 감격이 있다.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으며, 헌신이 있으며, 뜨거운 사랑이 있다. 그 속에서 성도는 살아나고, 교회는 깨어나며, 다음



세대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예배는 길이다

짧은 인생,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며, 가정이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 그러므로 이민교회는 모

든 중심에 예배를 두어야 한다. 예배는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불기둥이며, 구름기둥이다. 예배는 길이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사막광야같은 이민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길이 무엇인가? 예배이다. 예배로 나아올 때, 삶의 생기와 소망이 회복되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

davidnjeon@yahoo.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장바구니 은혜

각자 사역과 직장, 아이들을 돌보느라 만남이 쉽지 않았던 친한 사모님과 우리 집에서 오랜만에 점심 식사교제를 했다. 그동안 밀린 얘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한참 즐거운 아줌마 수다를 나누다 어느덧 아이들 학교시간이 되어 자리를 마무리하는데 "사모님 댁 근처에 LA마트가 가깝네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하신다.

"네, 그런데 다른 마켓들을 오가며 지나가는 했지만,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 했다. 그러자 "어머, 왜요? 이제 거기만 다니세요." 노던 버지니아에 여기 한 지점 뿐인데 모든 식품이 싱싱하고 가격이 싸서 집 근처 가까운 마트를 두 곳도 거리가 먼 그곳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간다고 한다. 사모님께서도 오늘 장을 보시

려고 아이스박스 큰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시며, 마침 잘 됐다고 함께 가지고 하신다.

깔끔하게 정돈과 포장에 의욕이 넘치는 요즘 마트들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살짝 시장느낌의 마트였다. 우리 같은 소매 소비자들 위주가 아닌, 요식업이나 도매상들을 위한 마트로 보여진다. 가격들을 살피며 나도 장을 보는데, 정말 비교가 되지 않게 가격이 저렴하고 모든 상품들이 싱싱했다. 계획 없이 얼떨결에 함께 시장을 보게 된 나는 많이 구매하지 않았지만, 친구사모님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카트 가득하게 장을 보며 가격과 품질에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진작 와보지 않았던 나를 자책하고 후회하며 이제 다른 마트는 안가고 여기만 와야겠다 하는 결심을 했다. 주차장에서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집에 돌아왔다.

주부로서 누구나 조금 더 경

제적이고 계획적인 쇼핑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고, 인터넷과 신문, 광고지를 통해 나온 쿠폰이나 세일 정보들로 더 저렴한 소비를 위해 찾아 애쓴다. 특히 최근에는 뉴스와 신문에 하루하루 경쟁하듯 고품가 인플레이션 위기와 심각한 경제위기를 얘기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생활물가가 급격히 치솟아 한정된 예산으로 고물가를 대비하기 위해 적절과 두려움이 생길 정도다. 요즘처럼 공산품과 식품 등 모든 소비에 절약과 절제를 위한 방법이나 노력을 해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우리를 더 저렴한 마트로 발길을 향하게 하고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소비 자체를 하지 않게 한다.

사순절을 지나며 스스로 주부로서 고통가시대에 위기를 느껴 절박하게 싸고 좋은 마트를 찾듯이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는 자책이 들었다.

사순절 묵상집을 펴서 오늘의 말씀을 읽는데, 바디매오 이야기가 나온다. 익숙히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또 나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흥겹게 노래와 율동으로 찬양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매오가 눈을 떴다네~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하는 찬양도 잘 알 것이다. 바디매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한 말씀은 성경 마가복음에 나온다. 자신의 소비에 절약과 절제를 위한 방법이나 노력을 해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우리를 더 저렴한 마트로 발길을 향하게 하고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소비 자체를 하지 않게 한다.

오늘의 절약을 위해 저렴한 마트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했다.

묵상가운데 이민자인 우리에게 특별히 모국인 한국과 삶과 사역의 터전인 미국 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을 주심을 느끼며 그동안 힘써 기도하지 않았던 나를 회개하게 하셨다. 두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두려워하게 하고, 지혜로 함께 하사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여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평안하기를 기도했다.

다시 뜬 눈으로 세상을 보며 행복하고, 장바구니가 가득한 만족감이 아닌, 죄 사함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과 기쁨이 모든 민족 누구에나 임하길 소망한다.

songje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상호관세 발효 D-1... 세계 각국 막판 협상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8일 주요 교역국들은 막판 협상을 시도하며 세율 조정 등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적극적으로 접촉해온 일본은 관세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자신이 부장관을 맡고 각료 전원을 참여시킨 '미국 관세 조치에 관한 종합대책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이시바 총리는 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외교적으로 대응하면서 자금 지원 등 국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통화하며 관세 관련 조치를 협의했다. 양국의 장관급 카운터파트도 지정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일본에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협의를 주도하게 된다. 베센트 장관은 엑스에서 "일본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라는 (트럼프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선 "일본이 매우 빠르게 대응한 만큼 (협상에서) 우선순위를 얻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교역국들도 협상 기회를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우회 수출국으로 지목돼 많게는 40%대의 '관세 폭탄'을 맞은 아시아 국가들이 저마다의 협상 카드를 내밀며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고 나섰다.

가장 높은 49%의 관세율이 적용된 캄보디아는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산 19개 품목의 관세를 내리겠다"고 제안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미 협상단을 구성해 정리된 부행정원장(부총리 격)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밀·면화·석유·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려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아프리카 남부의 작은 국가인 레소토마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단을 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미국에 '상호 무관세'를 제안하면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 불발 시 고강도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EU가 미국 공산품에 대해 무관세를 제안한 것이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강대국' 대치 구도를 허물지 못한 중국과 캐나다는 맞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트럼프의 '50% 추가 관세' 위협에도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반복관세를 매긴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지난 3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美 수출길 막힌 中, 다른 국가로 상품 밀어내기 하나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피해 미국에 수출하던 상품을 다른 국가들로 돌릴 경우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블룸버그이코노믹스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 상품을 다른 곳으로 밀어내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인 이번 관세전쟁 이전에도 전기차 등 고가 제품부터 저가 생활용품까지 자국에서 과잉 공급되는 제품의 수출을 확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각국이 대미 수출 감소를 우려하는 가운데 중국의 제조업 확장이 세계 경제를 압박하면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올해 생산액 규모가 115조 달러(17경14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세계 경제가 미·중 양국에서 충격을 받는 셈이다. 트럼프 관세가 시행되고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상호관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보복에 나서는 상황을 가정한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모델링 결과, 미국의 상품 수입은 2030년까지 30% 줄고 중국의 대미 수출은 85%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일본은 50% 이상, 베트남은 75%, 유럽연합(EU)과 인도는 40% 가까이, 영국과 브라질은 15% 정도 대미 수출이 줄어든다. 같은 기간 미국 이외의 대다수 국가의 중국산 수입은 5% 미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분석가 리처드 볼드윈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주최 행사에서 "미국 쇼크"는 더 심각한 '차이나 쇼크'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른 주요국이 대중국 관세를 올릴 것이다. 매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경영대 헨리 가오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주겠지만 이는 중국 국가자본주의가 세계 경제 질서에 가하는 근본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국가도 미국처럼 반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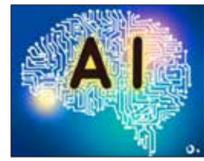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보포스트(SCMP)에 따르면 트럼프의 상호관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장관회의에서도 중국산 저가 수입품이 유럽으로 밀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로랑 생-마르탱 프랑스 무역장관은 이날 "우리 산업과 경제 안보, 저탄소로의 전환에 따라 EU와 중국 간 무역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무역전쟁 시기에 과잉 생산에 맞서 싸우는 등 단호한 무역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전쟁에 맞서 EU와 중국이 밀착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미하우 바라노프스키 폴란드 외무차관은 "미국과 파트너·동맹 관계에서 실질적인 도전 과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회의장에서 형성됐다"고 전했다.

미·중 AI 기술격차 1년 만에 크게 좁혀져

중국과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격차가 1년여 만에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7일(현지시간) 발

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최고 AI 모델 간 성능 차이는 지난 3월 1.7%로 평가됐다. 이는 언어와 사고, 수학 코딩 능력 등을 종합한 성능 평가에서 미국의 최고 AI 모델로 평가된 구글이 받은 점수(1385점)와 중국 최고 AI 모델로 평가된 딥시크가 받은 점수(1362점)를 비교한 것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1366점을 받아 구글보다 약간 뒤졌다.



지난해 1월 평가에서는 미·중 최고 AI 모델 간 격차가 9.3%였다. 중국은 지난해 딥시크 등을 중심으로 AI 주요 성능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특히 딥시크가 지난 1월 출시한 추론 모델 R1은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미국 최고의 AI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을 구현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멀티태스킹 언어 이해 능력 평가(MMLU)에서 미·중 간 격차는 2023년 말 17.5%였으나 지난해 말 0.3%로 줄어들었다. 수학 풀이 성능은 24.3%에서 1.6%로, 다중언어코드 생성 평가(HumanEval)는 31.6%에서 3.7%로 좁혀졌다. 중국은 지난해 전체 AI 특허의 69.7%를 차지했다.

지난해 출시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에서 미국은 40개로 15개의 중국을 크게 앞질렀다. 하지만 2022년 미국 70개, 중국 20개에 비하면 격차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프랑스는 3개,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1개 모델을 출시했다.

지난해 AI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는 미국이 1099억8000만 달러(161조8000억원)로 중국(92억9000만 달러)의 10배를 넘었다. 한국의 투자는 13억3000만 달러로 전년(13억9000만 달러)보다 다소 줄어들며 투자 규모 순위도 9위에서 11위로 하락했다.

"사람 발견하면 발포" 이스라엘, 가자지구 '살인구역' 조성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의 건물, 공장, 농장 등을 완전히 없애 뒤 완충지대를 만들어 '살인구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발포하라는 명령 또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가디언은 7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따라 '살인 구역(kill zone)'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완충지대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에 있는 300m 폭의 기존 완충지대에서 1km 더 가자지구 쪽으로 설정됐다.

가디언은 이스라엘 제대 군인들이 결성한 시민단체 '브레이킹 더 사이런스'가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식을 전했다. 브레이킹 더 사이런스는 완충지대 작업에 투입된 병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의 추가 완충지대 건설 목적이 해당 구역 내 장애물을 모두 없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잘 식별해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공간에는 자물쇠, 구조물도, 사람도 없어야 한다. 완충지대 안의 모든 구조물과 인프라가 파괴됐다"고 전했다.

작업에 참여한 이스라엘군 병사들은 민간인이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 이슬람 회당(모스크), 묘지, 공공시설물 등 거의 모든 건축물과 시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완충지대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

이스라엘 병사는 완충지대 안에서 사람을 발견할 경우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이 병사를 포함해 여러 병사는 '민간인'이라는 개념 없이 완충지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모두 테러리스트로 간주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이스라엘군 대위는 "명확한 교전수칙도 없었다"며 "우리는 치욕, 고통, 분노, 성공에 대한 강박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민간과 테러 시설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 가디언이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와의 경계에서 1~1.2km 내 건물 수백개를 조직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 약 1년반 동안 가자지구를 맹폭해 대부분의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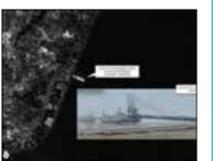
ISS 향하는 한국계 우주비행사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맨 왼쪽)과 러시아 우주비행사 2명이 8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즈 MS-27 우주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을 태운 우주선은 이날 성공적으로 발사돼 궤도에 올랐다. 첫 우주비행에 나선 조니 김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8개월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인 이민자 가정 출신인 그는 의사 경력을 가진 미 해군 소령이다.



"중국군, '대만 상륙용 바지선' 실전 테스트 돌입"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이어가는 등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군이 대만 상륙 작전에 쓸 바지선의 실전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대만 일간지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중국군의 신형 특수 상륙용 바지선 세 척의 현황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바지선 전면부에는 중국이 자체 조립할 수 있는 해상 부교를, 후면부에는 로로선(Ro-ro ship)을 연결할 수 있다. 로로선은 접안할 수 있는 자체 경사로를 갖춰 차 등이 이를 이용해 곧바로 선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화물선이다.

소식통은 "해당 바지선을 이용하면 전차와 장갑차가 끊임없이, 빠르게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의 전 관리인 루더윈은 "바지선은 대만 공격용이다.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해 항구가 파괴됐을 때 대비해 상륙할 용도로 바지선을 건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가 바지선이 대만을 침공하는 첫 번째 부대가 아닌 후속 부대가 상륙하는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대만 언론들은 최근 중국군이 중국 광저우 롱쉐다오 일대의 GSI(Gunagzhou Shipyard International) 조선소에서 대만 상륙 작전에 쓸 바지선을 최소 5척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1척은 작전을 위해 길이 120m짜리 부교를 연장 설치해 군 장비를 연안 도로까지 바로 운송할 플랫폼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32. 김창성(1864-?)

김창성은 1864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김주노와 결혼하여 딸 김인복을 두었다. 김창성과 그의 아내 김주노는 1901년에 미국 북감리교 내한 선교사인 윌리엄 아서 노블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그해 딸 인복은 위의 노블 목사에게서 유아세례를 받아 가족 모두 감리교 신자가 되었다.

노블 선교사는 1866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프링데일에서 출생하여 1889년에 와이오밍 대학을 나와 1892년에 드루 신학교를 졸업한 후 1892년에 미국 북감리교 와이오밍 헌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윌리엄 J. 홀 선교사의 권유로 그해 10월 15일에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로 내한하여 서울 배재학당 교사로 3년간 재직하다가 홀 선교사가 소천한 후 1895년에 평양으로 파송되어 교회 개척 사역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노블 선교사가 평양에서 김창성과 그의 아내와 딸에게 세례를 준 것으로 보인다. 그즈음에 김창성은 가족과 함께 평양에서 함흥으로 이동했던 것 같다.

함흥에서 거주하던 김창성이 40세가 된 1904년에 하와이 노동 이민을 계획하였고, 마침내 40세 된 아내와 4세 된 딸과 함께 '켈리' 증기선을 타고 그해 1월 23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는 오늘날의 그리스도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전신인 하와이 한인 감리교회에 등록하였다.

호놀룰루에 도착한 1904년 1월 23일에 김창성은 가족을 데리고 오아후섬 이와 지역에 있던 농장으로 이동하였다. 그가 이와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한인 노동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인다.

1905년에 미국 북감리교회는 하와이 노동자를 전도하기 위하여 하와이 선교연회를 조직하였다. 그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호놀룰루에서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개최되었고, 그달에 이와 한인감리교회 교세가 보고되었다. 그달에 보고된 대로 이와 한인감리교회에 학습 교인이 81명이었고, 김창성과 그의 부인 김주노 등 세례 교인이 54명이었으며, 주일학교 교사가 9명에 김

창성의 딸 김인복 등 등록된 주일학교 학생은 250명이었다. 그리고 1,500달러 상당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해 교인 2명이 사망했다.

그해 하와이 선교연회 직원은 10명이었다. 연회장은 감독 존 W. 해밀톤 박사였고, 감리사는 존 W. 와드만 목사였으며 언어권별 총무가 있어서 영어권 총무는 알타 모리스 여사였고, 일본어권 총무는 현 순이었다. 통계 총무는 S. 후지였고, 통계 부총무는 일본인 F. 토카마사와 함께 흥치범이었으며, 재무는 일본인 G. 모토카와와 함께 이CS였다. 10명 연회 직원 중 한국인이 3명이었다.

하와이 선교연회 정회원인 일본 연회 소속으로 26년 차인 존 W. 와드만 목사와 6년차의 S. 후지 목사, 캘리포니아 연회 소속으로 14년 차의 G. 모토카와, 8년 차의 T. 타카하시, 10년 차의 E. 토카마사와 12년 차의 S. 무이라 목사 이상 6명이었다. 그리고 수습 교역자로 6명이 있었고, 모두 캘리포니아 연회 소속 한국인이었다: 1년 차 민찬호, 현 순, 이 KC, 흥치범, 김영식 그리고 2년차 윤병구였다.

제1회 하와이 선교연회는 이와 지역 한인 감리교회에 김영식 전도사를 파송하였다. 그는 흥치범, 현 순, 민찬호 그리고 이경직과 함께 하와이 선교연회 고시위원회가 시행한 미국 북감리교 교리와 훈련 시험을 통과하여 수습 2년 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김영식은 하와이 선교연회 산하 성수주일부 부원이기도 하였다.

제3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1908년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그해 감독 데이비드 H. 무어 박사가 인도한 가운데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그해 감리사는 작년에 이어 존 W. 와드만 목사였고, 한국어권 교회 총무는 흥치범이었다. 그 연회는 김창성을 하와이섬 호노아포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하였다. 그가 파송된 그달에 보고된 바로 호노아포 한인감리교회 교세는 다음과 같았다. 학습 교인이 15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15명이었으며, 주

일학교 교사와 직원이 2명이었고,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30명이었으며, 평균 25명이 주일학교에 출석하였다. 그해 헌금액은 6달러였고, 그해 지출한 항목과 지출액은 다음과 같았다. 내지선교와 교회확장 헌금으로 3달러를 헌금하였고, 교육비로 3달러를 지출하였으며, 그리고 지역 교육비, 부인내지선교회 헌금 그리고 제너럴 연회 비용으로 각각 1달러를 지급하였다.

이듬해 1909년에 보고에 따르면 호노아포 한인감리교회 교세는 학습 교인이 작년과 같은 15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4명이 준 11명이었으며, 주일학교가 하나 더 개설하여 두 곳에 있었고, 주일학교 교사와 직원이 5명이 많은 7명이었고,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8명이 적은 22명이었으며, 평균 22명이 주일 학교에 출석하였다. 그해 헌금액은 8달러가 많은 14달러였고,

그해 지출한 항목과 지출액은 다음과 같았다. 내지선교와 교회확장 헌금은 작년과 같이 3달러를 헌금하였고, 교육비로 1달러가 적은 2달러를 지출하였으며, 그리고 지역 교육비는 지출하지 않았고, 부인 내지선교회 헌금은 1달러가 많은 2달러였으며, 제너럴 연회 비용은 없었다.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해외 선교교로 교회와 주일학교에 각각 1달러를 헌금하였고, 내지선교 주일학교 헌금으로 1달러를 헌금하였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줄었으나, 지난 1년 동안 주일학교를 한 곳 더 개교하였고, 내지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교회가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제4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1909년 3월 3일부터 7일까지 감독 찰스 W. 스미스 박사의 사회로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그해 감리사는 작년과 같이 존 W. 와드만 목사였고, 한국어권 교회 총무는 작년과 같이 흥치범 목사였다.

그런데 1909년에 김창성은 박화B와 함께 하와이섬 올나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달에 최CT가 목사로 파송을 받았다. 작년과는 달리 박화B가 권사로 파송을 받아 권사가 두 명이 되었으며 주일학교가 있는 두 곳에 거주하는 한인 교인을 전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창성이 파송 받은 달에 보고된 올나 한인 감리교회 통계는 다음과 같았다. 학습 교인이 36명이었으며, 세례 교인이 43명이었고, 주일학교가 두 곳에 있었으며, 교사와 직원이 9명이었고, 등록된 학생은 40명이었으며, 평균 35명이 참석하였다. 250달러 상당의 예배당이 있었다. 그리고 지출 예산이 총 16달러였다. 이 중에 선교 항목에 해외선교부 교회 헌금이 1달러였고, 내지선교/교회확장 교회 헌금이 6달러였고, 내지선교/교회확장 주일학교 헌금이 3달러였고, 주일학교 항목에 교회 헌금이 2달러였고, 주일학교 헌금이 1달러였으며,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에 1달러를 지원하였고, 부인내지선교회에 2달러를 후원하였다.



신축한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

김창성이 1년간 섬긴 결과를 1910년에 보고된 올나 한인 감리교회 통계에서 볼 때 교회가 성장했다고 보여진다. 학습 교인은 7명이 많은 43명이었으며, 세례 교인은 한 명이 적은 42명이었고, 주일학교는 작년과 같이 두 곳에 있었으며, 교사와 직원은 3명이 준 6명이었고, 등록된 학생은 26명이 많은 66명이었으며, 평균 18명이 많은 53명이 참석하였다. 작년에 없었던 엠퍼스 청년부가 세워져 23명이 등록하였다. 250달러 상당의 예배당이 있었다. 그리고 지출 예산이 5달러가 많은 21달러였다. 이 중에 선교 항목에 해외선교부 교회 헌금이 17달러가 많은 18달러였고, 작년에 지원했던 내지선교/교회확장 교회 헌금 항목이나 내지선교/교회확장 주일학교 헌금 항목은 아예 없어서 알 수 없다. 주일학교 항목에 교회 헌금이 1달러 적은 1달러였고, 주일학교 헌금 항목은 아예 없었다.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에 지원하지 않았고, 부인내지선교회에 1달러 적은 1달러를 후원하였으며, 작년에 없었던 흑인보조회에 1달러를 지출하였다.

제5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1910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신축한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그해 감독은 에드윈 홀트 목사였고, 감리사는 작년과 같이 존 W. 와드만 목사였고, 한국어권 교회 총무는 작년과 같이 흥치범 목사였다.

그달에 김창성은 김이K와 함께 하와이섬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달에 흥한식 목사가 하갈나우를 비롯하여 힐로와 올라 이상 세 지역 순회 목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러므로 흥한식 목사가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를 방문하지 못하였을 때 김창성은 김이K와 함께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등을 인도하여야 했다.

김창성이 권사로 파송을 받은 1910년 3월의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 교세는 아래와 같았다. 학습 교인이 12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10명이었으며, 주일학교 교사와 직원이 3명이었고,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29명이었으며, 주일학교 헌금으로 5달러를 헌금하였다. 그리고 200달러 상당의 예배당이 있었다.

김창성이 1년간 섬긴 결과를 이듬해 1911년에 보고한 통계에서 볼 수 있다. 학습 교인이 10명이 준 2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1명이 준 9명이었으며, 주일학교 교사와 직원이 1명 많은 4명이었고,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6명이 준 23명이었다. 해외선교 교회헌금으로 5달러

를 헌금하였고, 작년에 하지 않았던 주일학교부와 흑인보조회와 미국성서공회에 각각 1달러를 헌금하였다. 그리고 200달러 상당의 예배당이 있었다. 작년에 비해 교인과 주일학교 학생은 줄었으나 헌금을 더 많이 하였다.

1911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6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있었다. 그해 감독은 작년에 이어 에드윈 홀트 목사였고, 감리사는 작년과 같이 존 W. 와드만 목사였고, 한국어권 교회 총무는 작년과 같이 흥치범 목사였다.

그런데 김창성은 하와이섬 파할나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달에 김KH가 파할나 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로 파송을 받았고, 조한식 목사가 파할나 지역뿐만 아니라 호노아포 지역까지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순회 목사가 되었다. 순회 목사와 지방 전도사가 있었으므로 김창성은 예배를 인도하기보다는 전도사와 교인을 심방하고 교회 재정을 관리하였을 것이다.

김창성이 파송을 받은 1911년 1월에 보고된 대로 파할나 한인감리교회 교세는 아래와 같았다. 학습 교인이 15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12명이었으며, 교회 학교 교사와 직원이 7명이었고, 교회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20명이었다. 자체 예배당은 없었다. 내지 선교 및 교회 확장 선교비로 12달러를 지원했고, 주일학교부와 흑인보조회와 미국 성서공회에 각각 1달러씩 후원하였다.

1년간 김창성이 파할나 한인교회를 섬긴 결과를 1912년 하와이 선교연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학습 교인이 2명 많은 17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1명 많은 13명이었으며, 교회 학교 교사와 직원이 4명 적은 3명이었고, 교회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8명이 많은 28명이었다. 자체 예배당은 없었다. 내지 선교 및 교회 확장 선교비로 3달러가 많은 15달러를 지원했고, 주일학교부와 흑인보조회에 각각 1달러씩 후원하였으나 미국성서공회에는 후원하지 않았지만, 선교부에 일반 교육비로 1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를 보면 그의 사역은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12년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7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를 인도한 J.W. 배서포드 감독은 김창성을 파송하지 않았다. 그 후 그의 행적은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찾을 수 없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4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기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리스교예배(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예배: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21-1112, ebscross@yahoo.com 6050 W. TOLUH Y Ave, Chicago, IL 60646</p>	<p>말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다윗 The w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2 N 1st street, Pacific Beach WA 98571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360) 907-7271, blescolto@yahoo.com 3806 Country Club NW, Olympia, WA 98502</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891, 267-471-7777, Fax: (610) 222-0882 328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금요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8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p>	<p>보스톤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센터빌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581-9236, www.horeanccc.org 25454 Gum Spring Road, VA 20152</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e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8518</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337 706 Wilmer Rd, Ho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오광균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 213-1200, (254) 658-3176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laccncc.org 9424 S. Ye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IV.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

- 1.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들
2.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규범

1)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

(1) 율법보다 탁월한 방법이 있다

율법은 우리 삶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탁월한 방법을 제공하지만 율법에 나타난 법칙과는 다른, 보다 완전한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시키는 것이 더 합당하다. 바울 사도는 신자들의 의무는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받으실만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 바로 그것이다"(롬 12:1) 그 다음에는 같은 관계가 뒤 따르다. 곧 신자들은 결코 이 세대의 관습을 본받아서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성별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 외에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묵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니다.

(2)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님(고전 6:16)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게 될 때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일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자. 육신에 관한 일들을 추구하지 말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자.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자.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의 목표되신 주님께 드리자(고전 6:19).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롬 14:8)고 말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살아야 한다.

(3) 철학자들처럼 이성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기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이성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애쓰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자는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인간을 파멸로 끌어들이 수 있는 최악의 질병이기 때문에, 인간이 안심하고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만을 따르는 태도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내디뎌야 할 발걸음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물러나 우리의 사고능력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투입하는 것이다. "섬긴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자율적 의미를 상실한 인간의 사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게로 돌이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한 이와 같은 변화는 삶의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모든 철학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주제이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4)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권면한다.

철학자들은 이성만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인간은 이성에만 주의하고 그 뒤를 따르면 되는 것이요 이성만이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철학은 이성으로 하여금 성경의 지도에 복종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모시며 그를 위해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으며 사는 것이다(갈 2:20).

2)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1) 자아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의 영광을 존귀하게 하는 일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거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따르려는 열정에 헌신하는 것이 커다란 덕목이다. 특히 성경은 자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는 모든 탐심에 대한 욕구를 멀리하라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명예와 친구를 얻기 위해 그 같은 욕구를 갖지 말라는 뜻도 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든 야심, 인위적인 영광의 추구, 기타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뿌리 뽑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2)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삶이 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하나님께 보고해야 함을 알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든 의도를 지배하도록 해야 하며 그 의도가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해야 한다.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누구든지 쉽게 자기 영혼을 헛된 생각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 이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라고 말씀한다. 일단 자아의 거부가 인간의 마음을 차지하기만 하면 자만, 교만, 허례가 사라지고 탐욕, 무절제, 사치, 쾌락 등 자아를 사랑할 때 뒤에 따라오는 다른 악덕들이 사라진다(딤후 3:2-5). 반대로, 자아의 부인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서는 인간이 철면피와도 같이 온갖 포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 덕목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사악하게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이 판명된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도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자아를 부인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덕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는 것이다. 심지어 덕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철학자들은 대부분 교만과 자만에 그 마음이 부풀어 있기 마련이다.

(3)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집중해야 한다

세속의 영광을 추구하는 야심가들이나 은밀한 내면의 욕심에 마음이 부풀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다 받았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일어나 선한 행동에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의 악덕들의 세계가 숨어 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그 악덕들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훈련시키고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야 한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모델링

요즘 인기몰이 중인 드라마가 있다. 남녀 주인공이 각각 체육복과 옛날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정겨운 '뽕뽕 속 앵수다'가 그것이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이것을 접한 뒤로 이민 생활의 긴장감과 단조로운 속에 매마른 감성이 해갈되는 것을 경험했다. 특히 두 가정이 극 속에서 대조를 이루며 오늘날 가정에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랑으로 아내를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부부의 가정과 내 성질대로 내 욕구대로 함부로 아내를 대하는 부부의 가정이 잘 대조를 이루며 각 가정의 부부의 결말을 그려내고 있었다. 드라마는 성질대로 아내를 대하던 그 사람의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며 그 또한 피해자였음을 던지시 전하고 있었다.

한 가정의 문화는 세대로 전승된다. 예를 들면 단 음식을 좋아하던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입맛에 길들여 맥심 커피를 먹으면서도 각 설날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추가하여 달게 먹곤 한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말버릇이나 행동 또한 자녀들은 답습한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그 행동을 연연중에 답습하며 또 다른 가해자가 된다.

신앙생활 또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어느 해 새벽, 커다란 검은 쓰레기 봉지를 어깨에 짊어진 대학생이 우리 부부의 기도 끝나자, 분당 장의사 아래에 뒤통을 두는 것을 보았다. 크리넥스 티슈였다. 유학생 신분에 빠듯한 재정일 텐데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배려하여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다. 이 아이의 행동이 대견하여 우리 부부는 아침을 사주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어머니 또한 교회 화상실 청소소를 정기적으로 하며 교회를 잘 섬긴 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 가정의 신앙의 문화가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흥미롭다. 주일 예배나 신앙생활 전반에 소극적이며 자유분방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는 성인이 된 지금 부모와 동일한 신앙의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주일을 철저히 지키며 교회를 잘 섬긴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는 성인이 된 지금 여전히 그 부모처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배운다.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진리다. 정말 자식이 잘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세속주의에 빠져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자식을 달랠 때는 모습이 아니라 솔선 수범하여 예배 생활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 읽으며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를 지지해 주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삶의 노력이 더해질 때 우리의 가정은 신앙적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어 건강한 세대를 경건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서부(CA)교회안내) listing various churches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봄은 꽃, 꽃은 봄’

봄은 꽃입니다. 그리고 꽃은 봄입니다. 걸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꽃이요 위를 올려다보아도 꽃입니다. 고개를 돌려 오른쪽을 보아도 꽃이요 바꾸어 왼쪽을 바라보아도 꽃입니다.

길을 걸으며 노오란 민들레가 올라와 핀다했더니 "나리 나리 개나리", 개나리가 피고, 개나리가 피는구나 했더니 꽃밭에 수선화가 피고, 히아신스

가 나도 있다고 올라와 피고, 히아신스가 피는 것을 보고 툭립이 시샘을 하듯이 올라와 피고, 툭립이 피는 것을 보고 목련이 목을 내밀며 나도 있다고 피고, 그렇게 목련이 목을 내밀고 피는 것을 본 벚꽃이 너만 있느냐 나도 있다고 화사한 자태를 들어내고, 그런 벚꽃의 화사한 자태를 보고는 빨간 연산홍이 빨강게 얼굴을 내밀고, 연산홍이 얼굴을 내미는 것을

보고는 각양 각색의 로어던 더린(절죽과에 속한 꽃)이 피고, 그런가 하면 잔디밭이고 숲속이고, 산과 들에 그리고 멀리 가까이, 여기저기서 저마다 각양각색의 색깔로 예쁘고 아름답게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 꽃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다투어 피고 있는지... 그런 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입술에서 "빨간 꽃 노란 꽃 어여쁜 꽃이 봄바람 속에서 피어납니다. 새들이 나비야 어서어서 오나라. 봄바람에 춤을 추며 어서 오나라"--저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봄은 꽃이요, 꽃은 봄이다"라는 생각에 잠겨 듭니다.

그렇게 "봄은 꽃이요, 꽃은 봄이다"라는 생각에 잠겨 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

로 다가오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사를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님도 빠짐이 없느니라(사 40:26)". 아멘.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5대비전컨퍼런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새생명선교회 주최 소형교회 목회자 후원 및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5대 비전 미션컨퍼런스 성료

차세대 위한 통합 사역과 AI 융합 교육 비전 제시

육도교회(담임 그레이스 우 목사)가 주최한 5대 비전미션 컨퍼런스가 6(주일)과 7(월) 이후 7시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에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길 원하는 젊은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열렸다. 6일(주일) 오후 7시 그레이스 우 목사 사회로 열린 첫날 컨퍼런스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이상명 총장이 '비전 공동체 조직 세미나'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상명 총장은 "5대 비전 공동체는 기독교 복음이 여러 다양한 방식과 채널로 확산되는 복음 실천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행하는 공동체이며 행정, 교육, 목회/사역, 병원(지유), 사회복지라는 선교적 영역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각자의 은사/재능, 전공을 가지고 섬기고, 모든 사역 영역에 하나의 사명, '이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선교'를 위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 총장은 "5대 비전 공동체는 예배라는 구심성과 선교라는 원심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

양한 사역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며 "5대 비전 공동체는 어떤 물리적 공간에 한정된 목회 및 선교보다는 특징 공간을 중심으로 하지만 원심성을 지닌 원격 교육, 원격 진료, 원격 상담은 물론 원격으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선교사, 사역 및 조직을 지원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5대 비전 공동체는 행정, 교육, 목회/사역, 병원(지유), 사회복지를 실행하고 운영함에 있어 로고스(Logos: 이성-말씀), 파토스(Pathos: 감성-열정), 에토스(Ethos: 도덕성, 진실성-신언행일치)를 적절하고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X미션 대표 겸 GMU대학교 AI융합교육 학과장인 이충희 교수가 'AI와 미래혁명'을 주제로 스티븐 J. 레비 박사의 '신체를 건강하게 회복하다'를 주제로, 셀리 조 AMPAC Co. 최고경영자(CEO)가 '신 바이오닉스 매직 바이오'를 주제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새생명선교회 주최 소형교회 목회자 후원 및 세미나

50명 목회자와 3명의 신학생에게 후원금 및 장학금 전달

고 박희민 목사 추모 2주기 기념 2025년 새생명선교회 소형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이민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7일(월) 오전 9시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열렸다. 새생명비전교회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강준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주성기 장로(새생명선교회 이사장)가 기도했으며 김경진 목사가 '사람

을 품으라(마 9:35-3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카장에 인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은 불쌍히 여기심이다. 목회할 때 어려울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공활한 마음으로 어루만질 것이다. 그 공활함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는 민종기 목사가 축도로 마쳤다.

이어 열린 세미나는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 권혁빈 목사(씨드교회)가 '디아스포라 사역', 김우준 목사(토텐스조은교회)가 '설교사역',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이민목회와 위기관리', 민종기 목사(KCMUSA)가 '목회리더십', 강준민 목사가 '영성훈련'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한편 이날 배병우(바이올라대학교), 방 현(웨스트민스터신학교), 갈렘 강(폴리신학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참석한 50명의 목회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웰다잉 세미나' 개최

이영주 교수 강연, 온·오프라인 50여 명 참여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4월 1일, '웰다잉(Well-Dying): 나의 미래 의료 결정을 준비하세요'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간호학과 디렉터인 이영주 교수가 직접 강연했으며, 현장과 온라인(ZOOM)을 통해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주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본인이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사전 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의 필요성과 중요

성을 강조했다. 사전 의료지시서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처치를 미리 기록하고 이를 대신 결정해줄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서로, 각 주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연방정부와 모든 주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다고 안내했다. 또한 생명유지 치료를 위한 의사 지시서(POLST: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와 건강관리 법적 위임장(POAHC: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에 대한 개념과 작성법을 소개했으며, 응급상황 시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시행과



이영주 교수가 웰다잉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그것의 반대인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 지시서)의 의미와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장기기증과 장례 계획 등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며, 사전 준비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본인의 뜻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지 기능이 정상일 때 환자의 의향을 가족들과 논의

해 보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웰다잉은 죽음에 대한 준비뿐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삶의 마무리 과정"이라며 이번 세미나의 핵심과 취지를 밝혔다.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고난주간 특집 <고난을 넘어 부활로>

Why me?에서 Why not you?로 - 고난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

부모로서 자녀의 기쁨보다 더 큰 행복은 없지만, 그만큼 자녀의 아픔보다 더 깊은 고통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너너저 내립니다. 모든 걸 대신해주고 싶지만, 어떤 아픔은 아무리 애를 써도 대신 줄어질 수 없는 일이나니까요.

"자녀는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3)

돌아보면,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자녀들을 키우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당시엔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기르셨다" 말했지만, 마음 한켠엔 그것이 마치 나에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 안의 교만을 다루시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고난을 통해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Why me?"-절망 속에서 던진 질문

첫째 아들이 결혼하여 두 아들을 얻었을 때, 그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손자가 세 살이 되었을 무렵, 자폐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현실이 되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1)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 우리 손자입니까?"

가족들 앞에서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기도라기보다 울부짖음에 가까웠던 그 밤들 속에서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던 질문 하나-

"Why me?" 그 물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밤새 통곡하며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아들이, 그렇게 흐느끼며 울고 있다는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당장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거야."

담담하게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한없이 울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다시 떠오르는 물음은 늘 같았습니다. "Why me?"

하나님의 속삭임, "Why not you?"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그 질문과 함께 떠오른 한 말씀은 감동한 마음속에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고린도 후서 12:9)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와 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손자가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도무지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상하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충분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Why not you?" (왜 너는 아니어야 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고난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 안에는 내가 이런 시련을 겪을 이유가 없다는,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너희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

고난 중에도 허락하신 은혜 그 이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곁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기도하며 버텼고, 손자는 한글을 깨우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대표해 식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도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보내준 동영상 속에서 손자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외운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은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손자는 형을 살뜰히 챙기며,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를 아끼며 자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왜 우리입니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눈물 흘릴 날이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하신



이경원 사모 (하와이행복한교회)

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왜 우리 가정입니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 질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리고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임이로다." (로마서 5:3-4)

hichristian9@gmail.com

동부교계 기사관

뉴욕장로교회, 선교 바자회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4월 1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비전 챌린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706-0100

뉴저지갈보리교회, JUM 말씀나눔축제

뉴저지갈보리교회(담임 문정웅 목사)는 김경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4월24일부터 27일까지 '말씀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나눔 축제를 개최한다.

▲ 문의: 732-613-4930

베이사이드장로교회, 특별새벽부흥회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는 4월 14일(월)부터 4월26일(토)까지 오전 5시30분에 "너희는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약속된 것을 네 손에 넘겨 주리라!(수.8:7)"라는 주제로 특별새벽부흥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229-0858

뉴욕장로연합회, 블레스 USA 세미나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송정훈 장로)는 5월 1일(목) 오전 8시 뉴욕만나교회(정상철 목사 시무)에서 블레스 USA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총무 황규복 장로 917-204-9879



뉴욕수정교회, 제3대 남궁태준 담임목사 취임감사에 배후 사진 촬영했다

뉴욕수정교회, 제3대 남궁태준 담임목사 취임감사에 배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교회"

뉴욕수정교회는 4월 6일(주일) 오후 4시,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남궁태준 목사의 취임감사에 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다.

남궁태준 목사는 "이번 부름은 실험의 자리가 아닌, 그동안의 사역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자라라 믿는다"며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꽃피워지도록 인도하셨고, 앞으로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겠다"고 다짐했다.

황하균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식은 본 교회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과 이근원 목사 기도, 김신호 목사 성경봉독, 여성중창팀의 찬양과 윤상훈 목사(동부지방회 부회장)의 설교로 이어졌다. 윤상훈 목사는 "기대합니다 (롬 8:26-28)"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연약하여 누군가의 기대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권면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담임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수정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 후, 온 회중이 '주 안에 우리는 하나'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차영운 장

로가 담임목사 소개와 사역, 치리권 부여, 공포, 취임증서 및 교회 열쇠 증정식이 있는 후, 성도대표가 기념품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특별히 교회 열쇠는 2대 담임목사인 황영송 목사가 직접 전달했으며, 황하균 목사는 "열쇠는 보호와 지킴이며 책임과 축복"이라며 그 의미를 전했다.

2부 순서는 남궁태준 목사의 집례로 진행되었으며, 조승수 목사, 박영표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조 목사는 "풍부한 선교 경험을 지닌 남궁 목사님을 통해 수정교회가 선교에 더 큰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축하했고, 박 목사는 남궁 목사의 이름으로 사행시를 지어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면의 시간에는 김석형 목사가 "눈물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뉴욕수정교회 원로 박수복 목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오해가 깨끗이 정리되고, 은혜롭고 깔끔한 취임에 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제는 거리낌 없이 축복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성도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뉴욕수정 남성중창단의 찬양, 차영운 장로의 광고, 그리고 황영송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뉴욕교협, 2025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2025년 부활절을 맞이 4월 20일(주일) 새벽 6시에 11개 지역에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은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와 뉴욕장로교회(김학진

목사)는 연합찬양대를 구성하여 프라미스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지역별로 아래 교회에서 연합하여 예배 드림 문외는 각 지역장에게 하던 된다.

(기사제공 뉴욕교협)

Table with 3 columns: 지역, 예배장소, 지역장. Lists participating churches across various regions like Albany, Buffalo, and New York City.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 후 사진 촬영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 뉴욕서 개최

기도회 하나로 된 한미 부흥·동맹·평화

한미동맹 72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4월 1일(화) 오후 5시, 뉴욕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기도회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김영석 목사의 사회로 기도회가 시작되었으며, 김두영 장로(순복음선교회 상임이사)가 기도했다. 이어 뉴욕한인청소년합창단의 특별공연이 기도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고, 한미동맹 72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이 상영되어 그 의미가 되새겼다.

주제 강연에서 이영훈 목사는 한국이 미국에 진 '복음과 생명의 빛'을 강조하며, "한미 양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라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시 영적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혼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위에 설 것과 한미 동맹이 정치적 관계를 넘어 영적 유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는 랍비 안젤라 워닉 북담(센트럴 시나고그 수석 레비), 샬 스칼라토(뉴욕주참전용사협회장), 패트릭 T. 고든(NYPD 보호협회 회장)이 전했다.

이어진 기도회는 델로버트 스텨스 목사(CGI 이사회/더 태버너클 교회)가 '한국과 미국의 부흥을 위해' △산현 목사(북미총회 증경총회장)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위해' △김동현 목사(기도회 준비위원장)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특별히 이영훈 목사에게 연방 하원의원 토마스 수오지 의원, 뉴욕주 하원의원 톤 김 의원, 뉴저지 상/하원의원 홀리 세피시 상원의원이 각각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아시아아메리칸협의회(회장 리사 리)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본 기도회는 랍비 조셉 포타스니(뉴욕시 랍비 대표)의 만찬 기도와 주효식 목사(뉴욕교회협의회부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홍현숙 기자)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에서 다음세대 청년들이 나와 기도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사순절 서원새벽기도회 은혜 가운데 진행 중

'성도여, 거룩합시다' '청년여, 성결합시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제38회 사순절 서원새벽기도회'가 지난 3월 10일(월)부터 오는 4월 19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 '이런 표적이 따르니(막 16:17)'라는 주제아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본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은 '표적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교회전체를 감싸며 다민족과 다음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감동적인 예배'를 연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다.

지난 5일(토)에 드려진 예배는 순요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찬양 속에 성도들은 영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어 박찬준 집사의 기도, 김누리 집사의 성경봉독, 그루터기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이 더해지며 예배는 더욱 은혜롭게 채워졌다.

김성국 목사는 '성정을 깨끗하게 하시다(막 11:15-19)'라는 제목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정을 청결케 하신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자리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만민'은 구원받은 성도, 곧 거룩한 자들을 뜻한다. 그러나 거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마음속을 다스리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건강이나 재산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이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함을 추구할 때,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결국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의 힘은 거룩에 있다. 지금은 다시 거룩과 성결의 길을 돌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성도여, 거룩합시다, 청년여, 성결합시다"라고 외쳤다. 설교 후 이어진 통성기도 시간에는 영아부터 청년부까지 다음세대가 강단 앞으로 나와 교역자들과 장로들의 축복기도를 받으며, 다민족과 다음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예배당 전체를 진한 감동으로 물들었다.

매주 사순절 토요일 새벽예배 후에는 다양한 민족이 돌아가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에는 중국어 예배부가 따뜻한 국수를 정성껏 준비해 성도들과 은혜를 나눴다. 퀸즈장로교회는 '다민족과 다음세대를 품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으며, 현재 김성국 담임목사가 암 치료 중인 상황에서도 교회는 더욱 하나 되어 주제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홍현숙 기자)



문정웅 목사 부부와 가운데 선 집사

갈보리교회, 줌 말씀 나눔 축제 개최

"사랑의 길", 선의 사랑 스토리

뉴저지 갈보리교회(담임 문정웅 목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줌(JUM) 말씀 나눔 축제'를 개최하며,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4월부터 8월까지 네 명의 강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첫 번째 강사로 4월 6일 가수 선 집사가 '사랑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했다. 선 집사는 요한일서 4장 7-8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은 결혼 생활에서 시

작된 작은 나눔이 루게릭 병을 앓던 박승일 선수의 꿈인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돕게 되었고, 마침내 16년 만에 세계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이 열리게 되었다. 선 집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말했다.

갈보리교회는 루게릭 병원 후원교회로 첫 번째 후원회가 되었으며, 문정웅 목사는 교회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Advertisement for Pastor Pi Jong-jin's 4th Blessing Conference (피종진목사 4월 부흥성회), including dates, lo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churches.





2025 한인연합감리교 공개강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2025 한인연합감리교 공개강좌

“성도는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하며 살아가야”

2025 한인연합감리교 공개 강좌가 ‘마음과 이성, 신앙과 지식의 성장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일(토) 오전 10시 클레어몬트신학교(총장 그랜트 하기야 박사)에서 강남순 교수(텍사스 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남순 교수는 “예수님은 인류역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서 구성된 종교이며 세계 인구의 30%가 기독교인들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세계에서 지닌 권력과 영향력은 그 어느 종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교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것은 정의, 평화, 평등 문제를 빼놓

고 생각할 수 없다. 교회에 모여 성경공부, 설교, 음악을 통해 예수가 살라는 삶이 무엇인지 상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교수는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치열하게 씨름해야 한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생각할 때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 환대, 책임, 용서, 평등을 생각할 수 있다”며 “모든 사람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존엄성을 지닌 평등한 존재로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는 것이며 극도의 다름을 지닌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모두 사라지는 세계이며 이러한 불가능성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상정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준호 기자)



가스펠교회 VIP초청 찬양예배에서 최인혁 목사와 청중들이 찬양하고 있다

가스펠교회 VIP초청 찬양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 드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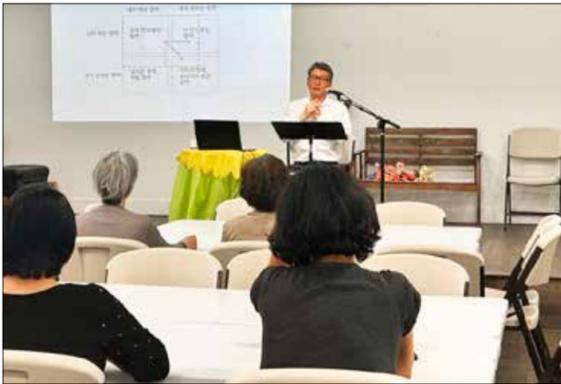
가스펠교회(담임 김정호 목사) VIP초청 찬양예배가 6일(주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이번 예배는 찬양사역자 최인혁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정호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찬양예배에서 최인혁 목사는 ‘착함, 외면당한 진리(마 5: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힘든 삶 속에 놓여있더라도 능히 이길 힘을 주셨다”라며 “찬양사역을 하러 90개국을 다녔다. 어느 날 외국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딸이 달려와서 안기는 것이었다. 이미 성인이 된 딸이었지만 내 품에 안겨서 매우 행복해 했다. 딸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볼 때 행복감이 밀려왔다. 그 순간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예배는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최 목사는 “한국의 인구가 3400만명일 때 교인수는 1450만명정도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독교국가라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5100만명인 요즘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500만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최 목사는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 척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는 빛이다. 빛이란 단어는 늘 선한 일과 착한 행실이 몸에 배인 사람이다. 그래서 빛과 착한행실은 동일하며 좁은 길과 비스듬하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착하면 된다. 그 착함은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또한 완벽한 전도는 빛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통해 전달된 빛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날 최인혁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바람’,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주여 인도하소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은혜’를 불렀다. 이날 예배는 김정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봄학기 사경회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박성규 목사(주님세움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하여 2025년 봄 학기 사경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1일(화) 오후 2시와 6시30분에



성화장로교회에서 열린 정신건강세미나에서 손재열 전도사가 강의하고 있다

성화장로교회 정신건강세미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이야기 하자”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가 주최한 세 번째 정신건강세미나가 ‘건강한 나와 우리’라는 주제로 5일(토) 오후 5시에 열렸다. 이동진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MFT-Marriage & Family Therapist 손재열 전도사(LA정신건강국)가 강사로 초청 돼 세미나를 인도했다. 손재열 전도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의 변화 없이 타인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내어놓기가 어렵다. 그것은 신뢰하기가 어려워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 교회 내에서 위함을 감수하면서 나 자신을 알리고 기도 제목도 나눌 때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의는 △‘아하’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나의 관계 순서는? △경정의 기술 △대화의 걸림돌 △의사소통 유형 등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손 전도사는 “교회에서도 개인 간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한다.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대화를 교정해 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이준석 선교사가 찬양하고 있다

재건나성교회 이준석 선교사 찬양간증집회

“어머니가 무당인 집에서 태어나 일본 선교사로”

재건나성교회(담임 신성욱 목사)는 2일(수) 저녁 7시30분 이준석 선교사(일본) 찬양간증 집회를 가졌다. 신성욱 목사 사회로 열린 집회에서 이준석 선교사는 간증을 통해 “친할머니가 중이셨고 어머니가 무당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자연스럽게 절에 다니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크리스천인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집에 불이 나기도 했고 무용을 전공했던 여동생이 십자군에 파열 부상으로 춤을 못 추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생기자 어머니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해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찬양사역자가 되는 꿈을 갖고 크리스천 기쁨사에 들어가 찬양음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제작비 문제로 결국 기쁨사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선교훈련을 준비하

는 교회 형의 권면을 받고 일본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일본복음선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선교사가 된 동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 노래하며 사역하겠다는 기도를 했으며 일본어 찬양앨범을 발매하게 되었다. 그때 나온 곡이 하나모(한국어로 꽃들도)이다. ‘꽃들도’는 일본 사람이 만든 곡인데 한국교회에서 편견 없이 불러서 감사했다. 앞으로도 일본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선교사는 현재 일본 나가타현에서 살며 나가타성서학원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있으며 1년 후엔 학위수여를 받게 된다. 현재 시몬가오카 그리스도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선교사는 ‘예수 사랑하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꽃들도’, ‘은혜’, ‘그것이 내게 복이라’, ‘난 그렇게 살고 있는 가’를 불렀다.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둘째 날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박성규 목사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위에 굳게 서서 열방을 부흥시킬 위대한 꿈을 갖고 도전하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채플린 사역과 영적 돌봄 사역 강좌 오픈

채플린 사역과 영적 돌봄 사역 강의를 10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8주 코스로 진행된다. 채플린 사역과 영적 돌봄 사역 강좌는 병원, 군대, 교정시설,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채플린(군목, 병원 목회자 등) 또는 영적 돌봄 사역자로 섬기기 위한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준비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등록비는 100불 (학점 이수가 필요한 경우 \$200불 별도) 강의 장소 7342 Orangethorpe Ave., # B115, Buena Park, CA, 90621

▲ 문의: (949)667-0264(J. Lee, JDSN), (714)393-4595

영화 <The King of Kings>

영화 <The King of Kings>가 부활절을 앞두고 4월 11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봉했다. 이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미완성 원고 <The Life of Our Lord>에서 영감을 받아, 디킨스와 그의 아들 윌터가 예수의 삶을 따라가며 사랑과 용서, 희생의 메시지를 체험하는 여정을 그린다. 감동적인 서사와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가 돋보인다. 현재 Regal LA Live, AMC CityWalk Hollywood, AMC Santa Monica 7 등 주요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 문의: dennis_cho@mofac-studios.com

제6회 KFAM 목회자 컨퍼런스

KFAM(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엄)은 오는 5월 19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제 6회 가정폭력예방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가정을 살리는 목회, 교회를 살리는 가정 - 함께 만드는 안전한 공동체”를 주제로,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자리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학생, 전도사, 목회자 사모 등 사역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메인 강연자는 유상훈 목사(The Faithful City 설립자, AZTIFC). 등록 마감은 5월 5일(주일). 등록비 무료, 사전 등록자에게는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등록링크: <https://forms.gle/dd4GwDA48ZooTbAE6>

▲ 문의: 강유미 (213)600-7310 / ykang@kfamla.org

소망소사이터티 죽음준비 세미나

소망소사이터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죽음준비 세미나를 10일(목) 오전 10시 30분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중규 목사), 13일(주일) 오전 11시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 은혜채플에서 개최한다.

▲ 문의: (562)977-4580



새노래선교합창단 창단 1주년 감사찬양예배에서 새노래선교합창단과 청중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새노래선교합창단 창단 1주년 감사찬양예배

십자가, 무지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새노래선교합창단(단장 조수아 조, 지휘 이경원) 창단 1주년 감사찬양예배가 6일(주일) 오후 5시 한빛성결교회(담임 고광훈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경원 지휘자는 “새노래선교합창단의 1주년을 감사하는 이 자리가 예배이길 원해서 예배로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창단 1주년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 새노래선교 합창단의 앞길을 위해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수아 조 단장 기도와 이경원 지휘자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찬양예배는 ‘The Love of God’,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오 아름다운’, ‘주는 그리스도’ 등을 불렀다. 이날 고광훈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고광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유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구속적인 사랑으로 인애와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고 물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대답하셨다. 그 사랑은 무지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내가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 기적이다. 오늘 새노래선교합창단 창단 1주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합창단원 박자인 장로(베이스)가 간증한 뒤 남성중창으로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주지 조 권사가 간증한 뒤 여성중창으로 ‘천 번을 불라도’를 불렀으며 오보 애연주자 조수행이 ‘은혜야니면’을 연주했다. 이날 예배는 ‘구주 예수 의지함’과 ‘여호와와 나의 목자’를 부른 뒤 김인철 목사(오렌지가나안교회 임)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의 봄학기 사경회가 열렸다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3. 일상에서 기도하라!

한국방문 기간에 병원에 입원하신 목사님 방문안을 했다. 제법 큰 수술을 마치고 누워 계신 목사님을 아주 잠시 뵈 계획이었다. 수술 직후라 면회조차 금지된 상황에 멀리서 왔고 곧 떠나야 할 사람이라 특별히 부탁해서 얻은 면회기회였다. 그러나 잠시 뵈고 돌아가기로 했던 계획은 사역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고 말았다.

선교, 목회, 그리고 다음 세대 세우기 등등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었다. 통증을 참아가며 사역과 영성에 관해 나누시던 목사님은 최근에 기도를 가르치는 사역에 관해서 나누시며 열변을 토하셨다. 수술 직후 통증이 심할 때였지만 목사님의 사역을 나누시며 통증을 잊으신 듯했다.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성도들과 성경공부 하듯 기도공부를 하는데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셨다. 그날 대화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면서 기도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오래전 이민목회를 하면서 기도학교를 개설하여 12주간의

과정으로 기도를 공부했는데 참 좋았다. 기도학교는 당시 교회 지도자 양육 과정 중의 하나였다. 말씀학교, 예배학교, 성령학교에 이어서 진행된 기도학교는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은혜롭고 유익한 과정이었다. 참가자들의 호평도 있었지만 나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있었다. 특히 나 자신은 기도학교는 나의 기도를 객관화할 기회가 되었고, 기도를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신앙인에게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기도다. 하지만, 기도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의 선배들 기도를 듣고 기도를 배운다. 모든 예배, 모든 행사에서 기도하고 모든 신앙인은 기도하지만, 기도에 대한 교육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기도를 실천하며 실제 생활에서 기도가 굳어진다. 교회 예배시간에 장로님의 대표기도가 종종 경험한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척도(Barometer)다. 기도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신학이 담겨 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다. 모든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즉 신학이 있다. 그 신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제 상황이 기도다.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 고백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기도는 생활화되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기도가 중요하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성경에는 쉬지 않고 기도한 경우가 많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늘 흔들림 없이 기도했던 다니엘, 위대한 선교사 바울... 등등 모두 삶에서 기도를 실천한 기도의 주인공이다.

이 일상 속의 기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에녹이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가 일

상생활에서 기도했다는 말이다.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은 5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을 설명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상(응답) 주심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믿었다. 에녹이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에녹이 탁월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일상 속의 기도다. 유진소목사는 "기도의 사랑"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에녹은 일상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강조한다. 유진소목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 바로 기

도라고 주장하며, 유목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드린 일상의 기도를 <에녹의 기도>라고 부른다. 에녹은 일상의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음을 보여 준다.

첫째, 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살아가는 삶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살아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일상의 삶에서 누릴 수가 있었다. 에녹과 같은 일상의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을 때 가능하다.

둘째, 일상의 기도를 드리려면 응답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다. 기도할수록 기도 응답에 믿음이 강화된다.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에녹이 그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셋째로 일상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요구한다. 친한 친구는 자주 만난다. 친한 친구는 감추는 것이 없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과 자주 대화(기도)한다.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이 일상의 기도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며 일상의 기도를 드린 것이다. 일상의 기도를 드린 에녹은 삶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일상의 기도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았던 에녹을 배우고 싶다.

Kangtg1207@gmail.com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12개국 470명 목회자, 제자훈련 전수받는다

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원장 오정현 목사)이 제자훈련 목회 전략을 12개국 목회자 470여명과 나누고 있다. 국제제자훈련원은 7일부터 닷새간 경기도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CAL 세미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1986년에 처음 시작된 CAL 세미나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CAL 세미나를 수료한 국내외 목회자는 2만7602명에 달한다. 이번 124기 세미나엔 우크라이나 30명 특별 참가단을 비롯해 가나, 탄자니아 인도 중국 등 전 세계 12개국 290여 교회의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강의는 영어 중국어 우크라이나어로 동시통역 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크게 4개 트랙이 운영되고 있다. 제자훈

련 목회의 철학·전략·방법론을 배우는 '주제강의', 현장 적용법을 연구하는 '소그룹 인도법', 사랑의교회 평신도 훈련현장을 참관·실습하는 '현장실습', 제자훈련으로 성장한 교회 목회자들의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CAL-NET)' 형성 등이다. 주제강의로는 '온전론 '교회론' '제자도' 등의 강의가 마련됐다. 오정현 목사와 강명옥 국제제자훈련원 부원장, 박주성 대표목사가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의 제자훈련 필요성과 현장 적용 사례를 전할 예정이다.

세미나 첫 강의는 오정현 목사의 온전론 강의로 시작했다. 오목사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사명을 위해 목자의 심정과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목회자의 마음을 통해 성도 개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님에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목회 통찰력과 양육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진 속 피어난 믿음과 눈물...

미얀마 주민들 "기도해주세요"

지난달 발생한 강진으로 수많은 가족이 붕괴되고 여진이 계속되는 미얀마 만달레이 인근 지역에서 구호 활동가들이 이재민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위로를 무릅쓴 이들은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전하며 외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호소했다.

희망국제선교회 소속 나실라(32)씨는 지진 발생 소식을 듣자마자 만달레이 인근인 아마라푸라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8일 국민일보와

SNS 인터뷰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사람들이 간히고 집들이 무너져 내렸다. 가족들이 건물 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구호 활동 동기를 설명했다.

현재 만달레이 찬미에따지에 거주하는 나실라씨는 피해 지역에 물과 쌀, 식용유, 라면부터 더운 날씨를 고려한 이온 음료, 야외 생활을 위한 모기향까지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으로 길이 막혀 이동이 힘들고, 정치적 상황으로 젊은이들이 부족해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호 활동 중 나실라씨는 건물 붕괴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이야기를 가슴 아팠다고 전했다.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평소 '건물에 무너져 죽기 싫다'고 했는데 지진으로 실제 그러한 상황을 마주한 것. 나실라씨는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마세요, 편히 쉬세요'라며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로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아팠다"고 밝혔다.

나실라씨는 지진이 발생한 직후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의 팀은 선도적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단체들이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아무리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 믿었다. 현재도 제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느끼고 있다"며 구호 활동에 대한 신념을 보여줬다.

담임 목사 청빙 공고

한인 동산 장로교회는 미국개혁교단(RCA) 소속으로, 뉴욕주 Westchester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5년에 설립되어 50주년이 된 교회입니다. 2025년 12월 은퇴 예정인 제 2대 담임목사님의 후임으로 사역을 이끌어 주실 제 3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을 공고합니다.

A. 자격 요건

- 1. 미국 개혁 교단(RCA) 또는 개혁 신앙을 따르는 교단에 소속되신 분
2.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3.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서 Full-time 목회 경험이 3년 이상 있으신 분
4. 한국어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5.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B. 제출 서류

- 1. 이력서 (신학 교육, 목회 경력 포함 및 본인-가족 사진 첨부)
2. 소개서 (본인 및 가족 소개)
3. 신앙고백서 (목회소명 간증문)
4. 목회 계획서 (장·단기 목회 계획)
5. 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M.Div 포함) 및 목사 안수 증명서)
6. 설교 영상 (최근 1년 내 설교 동영상 3편, 설교 원고 포함)
· 주일 설교: 한국어 2편 또는 한국어 1편 & 영어 1편
· 절기 설교: 한국어 1편
7.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자가 청빙위원회 공식 이메일로 직접 제출)

C. 유의 사항

- 1. 모든 서류는 한인 동산 장로교회 공식 이메일(church.nydongsan@gmail.com)로만 접수받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청빙 과정에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으로 명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빙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5. 서류 접수 마감일: 2025년 5월 31일

한인 동산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Dongsan Korean Reformed Church of Westchester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https://nydongsan.com
church.nydongsan@gmail.com

담임 목사 청빙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 위치한 뉴라이프교회는 복음주의 독립 교회로서 1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1.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3.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4. 미전도 종족 선교 비전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PDF로 제출)

- 1. 이력서(영한, 가족사진 첨부)및 본인소개서(목회 철학, 비전, 은사등)
2. 대학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6개월 이내 설교 2개 동영상 온라인 링크 2개(일반설교, 선교주제의 설교)
5. 추천서 2부(담임 목사나 신학교 교수)

서류 제출 마감 4월 30일 2025

주의 및 안내 사항

- 1.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해서만 사용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심사후에 개별 통지하여 전화 면접함
3. 모든 서류는 PDF 첨부 파일로 E-mail: baegnewlife@gmail.com

뉴라이프교회 청빙 위원회

Chicago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72]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문화 예술의 선교적 역할과 중요성: 시대를 넘어서 (2)

<지나호에 계속>

쉐퍼의 관점에서 예술은 기독교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술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반영하고, 문화를 구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전달하며, 세상에 아름다움과 희망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예술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하나님이 주신 구속적 사역에 참여하는 길이다. 쉐퍼는 예술이 단순히 개인의 취미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진리,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는 중요한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비슷한 시기에 존 스토트는 로잔 운동의 맥락에서 복음은 각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전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교에서 문화적 민감성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언어, 예술, 문화적 표현을 통해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는 예술과 문화가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이 교회의 선교 사역에 통합되고 구속되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예술은 종교적 장벽을 넘는 하나님의 창조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도구라 될 수 있다.

오스 기네스는 Redeeming Culture: A Christian Response to Mass Culture (1991) 에서 기독교인이 현대 대중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바르게 적용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기독교인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문화와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는 문화의 중요성이다. Guinness는 문화가 단지 세속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문화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문화와 예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문화적 활동을 통해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들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중 문화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응을 다룬다. Guinness는 대중 문화가 세속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으며, 그것이 신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중 문화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대신, 기독교인은 대중 문화를 구속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Guinness는 대중 문화가 기독교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제공한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대중 문화를 거부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속하고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는 문화와 예술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Guinness는 기독교인이 예술과 문화를 단지 관찰하거나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술과 문화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으며, 기독교인은 예술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인의 문화적 책임에 대해 깊이 다룬다. 문화는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영적 책임을 내포하는 영역이다. 기독교인은 문화적 참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문화 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대중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목소리가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화적 참여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조한다.

Guinness는 기독교인이 문화적 구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세속적 가치관을 극복하고, 복음의 가치를 문화 속에 녹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문화적 활동을 구속하고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독교인이 문화를 변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강조한다. 이는 예술적 표현, 사회적 변화, 그리고 문화적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촉구한다. 대중 문화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기독교인은 세속적인 문화가 가진 왜곡된 가치를 드러내고, 그 대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인이 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화적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네스는 기독교인이 대중 문화와 예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이 책은 기독교인들이 문화적 소명과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문화와 예술을 단순히 복음 전파의 도구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Guinness는 기독교인들이 문화적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구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잔의 정신을 이어가는 케이프타운 2010 서약은 문화 예술에 대해 로잔 언약보다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케이프타운 2010 서약은 문화와 예술이 기독교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의미와 목적을 드러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서약에서 문화와 예술의 선교적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 문화적 소통의 다리 역할이다. 문화와 예술은 선교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문화와 예술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술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에 깊이 연결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음악, 미술, 연극 등 예

술의 다양한 형태는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는 창조적인 선교 도구로서의 예술의 역할이다. 예술과 문화는 단순히 선교를 위한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창조적인 선교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서약은 말한다. 예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반영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술적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배의 방식으로, 선교 활동에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하고, 예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로 문화 변혁의 역할이다. 문화와 예술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을 넘어서, 세상의 문화적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예술과 문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믿는다. 기독교인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문화적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술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넷째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교는 단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케이프타운 서약은 강조한다. 예술은 각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도구이다. 예술을 통한 선교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지원한다.

교회는 문화와 예술을 선교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서약에서 언급된다. 교회는 예술적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연결되고,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술을 통해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예술적 표현을 통해 확산시킬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예술적 재능을 키우고 활용하여, 교회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다.

케이프타운 2010 서약에서 문화와 예술은 단순히 선교의 부수적인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예술과 문화는 선교 활동에 창의적이고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교회는 이를 통해 복음을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케이프타운 2010 서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하여 행동을 요청하는데 다음과 같다. [다원적이고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증거하기]

4. 진리와 전 세계적 미디어
우리는 미디어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로서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분야에 비판적이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A) 미디어에 대한 인식: 사람들은 하여금 자신이 수용하는 메시지와 세계관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다. 미디어는 중립적이며 때로는 복음에 우호적이지만 포르노, 폭력, 탐욕에 악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이슈들에 개방적으로 접근하고 신자들이 그러한 압력과 유혹을 거부하도록 교육하며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B) 미디어의 실재: 일반적인 정보 미디어와 연예 미디어 분야에서 확실하고도 신뢰할 만한 기독교적 역할 모델들과 커뮤니티 리더들을 발굴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수단들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자들을 격려한다.

C) 미디어 사역: 통전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통적인' 미디어와 기성 미디어에 새로운 미디어의 상호작용을 위한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용도를 개발한다.

5. 진리와 선교에서의 예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창조성이라는 은사를 갖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예술은 인류로서 우리가 행하는 통전적 행위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고의 예술가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예술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드라마, 춤, 이야기, 음악, 그리고 시각 이미지는 우리의 본연이라는 실재와 복음의 핵심으로서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실재를 드러내는 표현들이다.

선교에 있어 예술은 미개적 분야이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술 분야에 참여할 것을 적극 독려한다. A) 우리는 모든 문화 속에서 교회가 다음의 선교를 위한 상황으로서의 예술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를 갈망한다.

● 우리를 향한 제자도로의 부르심이라는 타당하고 가치 있는 구성 요소로서의 신앙 공동체의 삶으로 예술을 되가져오도록 한다.

● 예술적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을 후원하여 그들의 사역이 번창하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 예술이 우리의 이웃과 타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진숙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토착적인 예술 표현들을 격려하도록 한다.

이렇게 케이프타운 2010은 문화와 예술, 미디어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지난 해에 열린 로잔 4 서울대회 선언문은 문화 예술에 대해 언급한 양이 많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문화 예술이 단순한 복음 전파의 도구에 그치지 않고, 문화 변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된다. 예술과 문화는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서울 선언문에서는 기독교 문화 해석에 대한 중요성도 다루고 있으며, 예술을 통해 복음이 다양한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돕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예술을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강조하는 반면, 2024년 서울 선언문에서는 예술이 문화적 변혁과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도전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은 예술을 신앙과 문화의 중요한 교차점으로 보고 있으며, 예술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재능으로 인정한다. 예술은 단순히 예배에서 사용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현대의 기독교에서는 예술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으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많은 기독교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 세상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는 작품을 창조하며, 세상의 아름다움과 고통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려 한다. 예술은 단순히 신앙의 개인적인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을 구속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현대의 기독교에서는 예술이 선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예술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독교 선교는 전통적인 설교와 복음 전파 외에도 예술을 통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예술을 통해 문화와의 교류를 시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예술적 선교 활동은 현대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문화 예술을 받아들이고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교회는 예술과 선교를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을 온전하게 실현해야 한다. 예술은 단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을 온전하게 실현해야 한다. 예술은 단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을 온전하게 실현해야 한다. 예술은 단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을 온전하게 실현해야 한다. 예술은 단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을 온전하게 실현해야 한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술과 선교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신학적, 실천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교회는 예술을 하나님의 창조성과 구속적 계획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체로 바라보아야 하며, 예술이 문화 구속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예술을 통한 복음 전파: 예술은 복음을 전달하는 강력한 매체가 될 수 있다. 그림, 음악,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은 문화와 감정적, 지적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제공한다.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창작물을 통해 신앙을 표현하고, 그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전할 수 있다.

문화와의 상호작용: 예술은 단순한 미적 표현이 아니라, 문화 속에서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이다. 예술을 통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문화를 구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2. 구체적인 방안 제안

1) 예술과 선교의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예술을 통한 선교 훈련: 교회 내에서 예술과 선교를 연결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독교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여 예술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예술가

들이 선교적인 시각으로 예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독교 예술과 신학의 결합: 예술과 신학을 결합한 커리큘럼을 통해 교회 내 신자들이 예술의 신학적 중요성과 그 선교적 역할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예술을 단순한 취미나 직업으로 보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다.

2) 예술가들의 역할 강화:

● 예술가의 임무: 교회는 예술가들을 하나님의 사역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표현하는 일을 지원해야 한다. 예술가들이 창작하는 과정에서 신앙과 예술의 결합을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가들은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예술의 공간 제공: 교회는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발표하고,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예술 전시회, 공연, 음악회 등을 통해 교회 내에서 예술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문화적 민감성과 교차문화적 선교:

● 문화의 이해와 소통: 교회는 예술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며, 복음을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예술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면서도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예술은 각 문화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그 문화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글로벌 미션과 예술: 교회는 예술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선교적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예술을 통한 문화적 다리 놓기를 통해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예술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4) 예술을 통한 사회적 회복과 치유:

● 예술을 통한 치유와 회복: 예술은 단순히 미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예술가들은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예술을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교회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술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지역사회와의 연대: 교회는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술은 특정 사회적 문제를 다루거나,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교회는 예술과 선교를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술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문화를 구속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예술을 통해 교회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문화적 장벽을 허물며,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교회가 예술을 선교적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더 넓은 범위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dr.yongcho@gmail.com

매일가정에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장자의 기업 (대상 5:1-17) 찬 515장

율법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자는 책임과 특권으로 두 배의 몫을 받지만, 르우벤 지파는 죄로 인해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했습니다. 시모와 통간한 죄는 인생과 자손의 미래를 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작은 행동까지도 보십니다. 그 결과, 장자의 특권은 요셉 지파에게, 처리자의 권위는 유다 지파에

계 넘어갔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감절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 영적 욕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엘리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셨듯,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화 신실한 믿음의 삶 (대상 5:18-26) 찬 484장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지만, 영적 음행을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하십니다. 본문은 그 진리를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첫째, 기도하는 삶.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환난 중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악에서 보호받고 찬송으로 응답받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둘째, 신실한 삶. 승리했지만,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한때의 영광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은총을 구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쓰임 받다 버림받는 인생은 신자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끝까지 쓰임 받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 위에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수 예배 중심의 삶 (대상 6:1-48) 찬 246장

본문은 다윗 왕가의 족보를 보여주며, 레위 지파가 거한 곳에서의 예배 중심성을 강조합니다. 레위 지파처럼 그리스도인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배입니다. 계시록 4-5장의 24장로의 예배 모습이나, 구원받자마자 참된 예배를 구한 수가성 여인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예배가 항상 삶의 중심이 되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둘째,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담긴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의 최고의 표현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축제 중심 예배의 위험을 피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 책임지는 삶 (대상 6:49-81) 찬 264장

이스라엘 중앙에 도피성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이미 참 도피성 안에 거합니다. 첫째, 레위인의 분향, 제사, 속죄 사역처럼 그리스도인은 참 예배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반 백성이 거주지와 생계를 감당했듯, 국가는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이

루어지도록 보호하고 공급해야 합니다. 목사는 복음에 전념하고, 성도는 그 사역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자상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소의 입을 막지 않으신 하나님은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금 기업의 꿈을 그려라 (대상 7:20-40) 찬 523장

정복과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미 6지파는 기업 분배가 끝났고 나머지 지파는 준비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의 은혜(구원)는 공동적이지만, 달란트(은사)의 은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등 상급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업을 많이 받아 누릴까요? 첫째, 기업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과 은사는 갈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둘째, 기업의 꿈을 그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때 다모하게 되고, 보배로운 사실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로 앞에서 제비를 뽑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받아 성결하고 신실한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토 순종의 중요성 (대상 8:1-40) 찬 214장

베냐민 지파의 장래는 라헬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의 안타까운 사정이 후손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창대하고 많은 용사들이 나왔지만, 순간 구약 교회의 길을 벗어나 대적함으로써 씨를 말리고 죽임을 당한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 사울 같은 출중한 인물이 나왔지만, 순종에 실패하여 보잘것없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약해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원리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둘째, 한 번의 불순종이 그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명예와 탐욕의 노예가 된 사울은 순종을 떠나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순종에 일관해야 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73)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

필자의 음악실 서재에 한 편의 그림 액자가 있습니다. 17세기 빛의 화가로 불리는 네덜란드 출신의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의 그림 '탕자의 귀향'입니다. 이 작품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의 대가인 또 한 명의 네덜란드 출신인 헨리 나우웬(Henri Jozef Machiel Nouwen, 1932-1996)을 크게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렘브란트가 그린 이 작품의 원본을 나우웬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나우웬은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그는 당시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죽는 날까지 캐나다에 있는 '라르쉬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며 마지막 까지 생을 살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그림 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모습은 아버지가 방탕하다 돌아온 탕자인 작은 아들과 포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에서 두 사람의 그 모습에 못마땅해하는 큰아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나우웬은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두 팔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그림 안에 담긴 작은아들과 큰아들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며 나우웬은 "예수님과 렘브란트가 바로 나의 회심을 영도에 두고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렸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 자신이 작은 아들이자 곧 큰 아들이라는 사실 역시 더욱 분명해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나우웬이 말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추어집니다. 누가 저자가 기록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장면은 마태 저자나 마가 저자의 기록에 비해 비교적 운운하게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나 마가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격한 감정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큰 아들의 불평의 모습을, 이와는 대조적으로 작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주권을 맡기는 순종의 모습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습 속에서 바로 나우웬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큰아들, 그리고 작은아들의 양면성을 연상하게 됩니다. 한국의 조혜영 작곡가가 이 겹세마네 동산에서의 전경을 음악으로 잘 스케치하여 당시 예수님의 반뇌하는 모습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장면을 조명하게 됩니다. 먼저 겹세마네 동산의 전경입니다. 칠후 같은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기 위해 단조로 서주를 시작합니다. 이어 먼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

하시는 모습을 유니슨으로 비춥니다. 이어 카메라 앵글을 클러즈 업 해가는 느낌처럼 네 파트가 호모포니 화성을 이루어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가까이에서 보는 듯 조명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엷박자를 사용하여 맑이 핏방울 되듯 보이는 그 강렬함을 리듬을 통해 비춥니다. 그리고 바로 유니슨으로 대조를 이루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메아리로 울리듯 묘사하여 평화로운 여운을 남기며 어린양 되신 예수님을 가슴에 담게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두 마음을 그려놓습니다. 하나는 마치 큰아들의 모습처럼 불평이 섞인 항변(?) 같은 모습을 봅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 고통의 손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소서" 다른 하나는 작은 아들이 주는 고백처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며 죽음으로 온 세상 구원할 어린양이 되겠다는 저항 속에 순종을 보여주

는 위대한 장면을 연출하며 종결합니다. 이 음악을 통해 보이는 예수님의 겹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은 하나님인 예수께서 인간의 약한 모습을 리얼하게 펼쳐진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를 통해 그 십자가 고통, 그리고 죽음을 겸연하게 받아들이신 인간 예수님의 다른 한 단면을 또한 여실히 보게 됩니다. 마치 나우웬이 렘브란트가 그린 한 편의 그림을 통해 모든 삶이 바뀌었던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의 장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것으로 도전시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권이 하늘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전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진정한 소망을 품고 그분만을 쫓아내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성취감이나 패배감, 우울감이나 열등감, 혹은 자량이나 낙심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분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한편 내가 잘되어 우쭐해서 교만에 빠질 때, 혹은 세상에서 잘되지 않아 낙담에 빠질 때 이 또한 우리가 분향을 잃어 버린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조건과 환경에서 분향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한 소망을 매 순간 갱신하는 순례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겹세마네의 기도 합창) 듣기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드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터가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고난주간 특별 칼럼

예수님의 블루 오션

칭기즈칸은 "내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것을 정글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상은 살벌하기만 하다.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는 때로는 연장전을 하면서까지 기어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게임의 법칙도 있다. 세상은 승자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승자가 되려고 치열하게 살아간다. 이런 세상을 레드오션이라 부른다. 살아남기 위해 이기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바다를 말한다. 특히 시장 경제에서 그것은 글로벌 경쟁 시대 속에서 농민은 농민대로 병원과 학교 경영까지 무자비한 경쟁의 피바다 속에서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하여 불필요한 원가를 절감하기도 하고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로 인해 수익을 높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것은 무한 경쟁 세상이기 때문이다. 1997년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 대학원 김위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 두분의 공동논문에서 "블루 오션 전략"을 발표하면서 혁신적인 가치 혁명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주장 하였다. 즉, 시장 수요는 경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출에 의해서 얻는 것이다 더 이상 게임의 법칙은 무의미하다 이것은 무한한 성장과 고 소득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후 블루 오션은 정치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윈윈 전범으로 회자되고 있다.

숨하였다 사실 검은 너무 자주 뽑는 것이 아니다. 태산같은 원수 앞에서나 한번 뽑는 법이다.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검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다 "검을 가지 주님은 그날 피바다를 푸른 바다로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시장 창조이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혁신이다. 내게 힘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이겨야 하는 세상에서 주님은 푸른 바다의 가치를 말씀 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오기를 객기를 아니 단지 정의와 불의를 한순간에 폭로 할수도 있으신 분이데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렇게 하면 나는 의로워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복한 순간이다. 그 당시 두사람은 정상을 눈앞에 두고 서로 양보하였다. 그래도 한순간 명예와 부 그리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순간인데도 말이다. 자연도 이런 사람을 풀어주었다고 불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결국 푸른 바다로 창조되었다. 상상하며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이다

그렇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고 새로운 가치를 선포하셨다. 그렇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혁신적인 말씀을 하셨다. 강자만이 최고이며 승자만이 최선인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다.



이재오 목사
(휴스턴중앙장로교회 담임)

오늘의 우리의 고민은 내가 살



런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은 곧 성경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 그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다. 우리가 푸른 바다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나의 혈기를 들어내는 그 순간 때로는 힘으로 이길수도 있으나 그것은 피바다일 뿐이다.

북한의 유명한 연극 공연 제목이 피바다인 것을 본 적이 있다. 아마 굉장히 웅장하고 매우 화려하게 진행될 것이며 그리고 어찌면 감동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제목만 보고도 알것 같다. 우리 힘으로 철저히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땅은 지금 정말 피바다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젠 악과 독만 남아 있다. 검은 가지는 자는 다 검은으로 망한다. 우리는 얼마나 더 살아야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을까? 1953년 5월 29일 오전 10시 뉴질랜드 양봉업자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정

기 위하여 경쟁에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며 오늘의 우리의 아픔은 내가 이기기 위하여 싸움에서 기어이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자의 현실은 훨씬 그렇다. 제한되고 한정된 시장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기에 그렇다. 이민교회 역시 가슴 아픈 일이 있다. 제한된 한인을 두고 교회 간 심지어 선교에도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레드오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혈기와 독기로 가득 찬 군중들, 그들은 손에 있는 돌로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흥분한 또 다른 피바다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 하셨다 새로운 푸른 바다를 만드신 것이다.

핏방울이 밤하늘에 흘러내리던 그 날 밤 칼을 치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눅 22장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다.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까지를 눌러야 한다는 것이다. 요 18장에서는 내가 주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은 바로 피바다의 세상을 푸른 바다로 그래서 잎이 춤을 추며 열매가 노래를 하는 생명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다. 칭기즈칸도 마지막에는 서로 싸우지 않고 사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셨던 피가 피로 얼룩진 세상을 푸른 바다로 처음 창조의 세계로 다시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푸른 바다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흘리신 피 그것으로 이 세상은 충분하지 않은가? 더 이상 서로 피를 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내가 죽어 모두가 사는 푸른 바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바다가 아닌가? 사순절은 바로 블루오션이다.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국가명 파푸아뉴기니
- ▲ 종족명 께오루-아히아종족
- ▲ 인구 약 5,970명
- ▲ 종교 민속 종교 5%, 복음화율 95%
-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 종족 프로필
걸프 주에 산다. 강 상류 마을(아히아), 해변과 내륙 마을(께오루), 해변 마을(빠이라)로 나뉘고 3개의 방언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지만, 여전히 전통 종교를 믿고 주술과 마술을 한다. 복음화율은 높지만 대부분 가톨릭과 이단이다.
- ▲ 기도제목
1. 자신의 말에 대한 자부심이 큰 께오루-아히아 종족 사람들을 도와 성경 번역을 시작할 사역자를 보내 주시도록
2. 께오루-아히아 종족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믿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은혜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은혜 장로 교회는 미국 장로교 교단(PCA) 소속으로 Texas주 Corpus Christi 에 있으며 담임 목사의 사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임 목사를 청빙 하려고 합니다. (자세 교회와 사택 있음)

지원 요건

1.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로 3년 이상 시무 하신 분
2.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 하신 분
3. 이중 언어 (한국어, 영어) 가 가능 하신 분
4. 선교 사역에 비전이 있으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목회 경력, 가족 사진 첨부)
2. 증명서: 대학 및 신학교 졸업 증서통
3. 목사 안수 증명서
4. 본인 소개 및 가족 소개서
5.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 2편 온라인 링크
6. 추천서 2부(담임 목사 및 신학교 교수)

주의 사항

1. 모든 서류는 청빙에 관해서만 사용 하며 반환치 않습니다.
2. 청빙 결과는 개별 통지합니다.
3. 모든 서류는 첨부 파일로 dongpchoi@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4. 서류 제출 마감은 2025년 5월 31일 까지입니다.

헌츠빌 영락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저희 헌츠빌 영락 장로교회는 3대 목사님께서 20년간 은혜롭게 시무하신후 주님의 축복으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신바 제4대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을 공고 합니다

자격요건

- *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 Div)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 목사 안수 후 Full-time으로 목회경험이 5년(담임목사/부목사 포함) 이상인 분
- * 미국에서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이중언어(한/영) 설교 및 소통 가능하신 분
- * 목회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한국어, 영어 각 1부씩)
 -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 *나이 40세~55세
 - *목사 안수 증명서
 -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 *목회자 추천서 최소 2통(목회자가 직접 이메일로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한국어/영어 설교 2회분씩) (동영상 링크)
 - *신앙 고백서
 - *목회 철학
 - *목회 계획서
- [모든 서류는 공지된 이메일 (wellregina@hotmail.com) 로만 접수됩니다. 제출된 서류/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기한 및 통보

서류접수는 2025년 4월 30일 오후 6시 까지이며 1차 통보는 10일 후인 2025년 5월 10일까지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니 이메일 (wellregina@hotmail.com)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헌츠빌 영락 장로교회는 독립된 건물로써 자체 성전과 안락한 친교실, 주일학교 교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불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목사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Huntsville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헌츠빌 영락 장로교회
Email: wellregina@hotmail.com
Address: 7904 Whitesburg Drive, Huntsville AL, 35802, USA

은혜 한인 장로 교회 청빙 위원회
Grac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orpus Christi

4833 Lavaca Drive Corpus Christi, TX 78411
www.facebook.com/KoreanGraceChurch
713 357 8608, 713 357 8609



미얀마, 113년 만의 최악의 지진

3월28일,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을 강타한 7.7 규모의 지진은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진동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수년간의 내전과 슈퍼 태풍에 이어 또다시 덮친 재난. 사람들은 가족과 집을 잃고,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얀마를 돕기 위한 힘을 모아주세요.

Chase Bank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Account Number 931383936
Routing Number
071000013(Deposit, ACH)
021000021(wire transfer)

수표보내는 곳

Pay to the KAFHI(Memo 미얀마긴급구호)

보낼 곳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문의전화

847-296-4555, 703-473-4696

